



2015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2015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 집 필 진 ▶

-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2015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펴내면서

1997년 말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고용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 비정규직의 비중은 확대되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한 기초통계자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규모 및 근로조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자료집에서는 시계열 변화에 더하여 근로형태별로 심층적인 노동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5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는 2015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관련 노동통계의 정리 및 분석을 책임진 김복순 전문위원, 정현상 연구원, 출판을 담당할 정철 전문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통계자료집이 정책 담당자, 학자, 노사의 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많은 조언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시의성 있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고용노동정책의 수립과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 하 남

목 차

I. 개 요	1
II. 비정규직의 규모 추이	4
〈표 II-1〉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4
〈표 II-2〉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5
〈표 II-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6
〈표 II-4〉 비전형 근로자의 세부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7
III. 비정규직의 특성별 추이	9
1. 비정규직의 인적 특성	9
2. 비정규직의 사업체 특성	18
〈표 III-1〉 근로형태별·성별 구성(2015년 8월)	9
〈표 III-2〉 성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11
〈표 III-3〉 근로형태별 학력 구성(2015년 8월)	12
〈표 III-4〉 학력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14
〈표 III-5〉 근로형태별 연령 구성(2015년 8월)	16
〈표 III-6〉 연령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19
〈표 III-7〉 근로형태별 산업 분포(2015년 8월)	20
〈표 III-8〉 산업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5년)	22
〈표 III-9〉 비전형 근로의 산업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 (2004년→2015년)	23
〈표 III-10〉 근로형태별 직업 분포(2015년 8월)	25
〈표 III-11〉 직종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2015년)	26

〈표 III-12〉 근로형태별 사업체규모 분포(2015년 8월)	27
〈표 III-13〉 사업체규모별 ·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28
〈표 III-14〉 근로형태별 · 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분포(2015년 8월)	29
〈표 III-15〉 근로형태별 ·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31
[그림 III-1] 교육수준별 · 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13
[그림 III-2] 5세 단위 구간별 ·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17

IV.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1. 임 금	32
2. 근로시간	35
3. 근속기간	36

〈표 IV-1〉 근로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 (8월 기준, 정규직=100)	32
〈표 IV-2〉 근로형태별 상대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 (8월 기준, 정규직=100)	35
〈표 IV-3〉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평균 주당근로시간 추이	36
〈표 IV-4〉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37
〈표 IV-5〉 근로형태별 근속기간 분포(2015년 8월 기준)	38

V. 비정규직의 복지

1. 사회보험	39
2.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복지제도와 상여금	42
3. 근로계약서와 직업훈련	47

〈표 V-1〉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39
〈표 V-2〉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40
〈표 V-3〉 근로형태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41

〈표 V-4〉 근로형태별 퇴직금 수혜율	42
〈표 V-5〉 근로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44
〈표 V-6〉 근로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45
〈표 V-7〉 근로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46
〈표 V-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비중 추이	48
〈표 V-9〉 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49
VI. 비정규직의 취업사유	50
〈표 VI-1〉 근로형태별 취업사유 구성(2015년 8월)	50
〈표 VI-2〉 근로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	52
VII.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53
〈표 VII-1〉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53
〈표 VII-2〉 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 추이	54
〈표 VII-3〉 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비중	55
〈표 VII-4〉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자격 있는 사람 중 조합원 비중 추이	56
부 표	57
〈부표 1〉 임금근로자 추이(8월 기준)	58
〈부표 2〉 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0
〈부표 3〉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2
〈부표 4〉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4
〈부표 5〉 기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6
〈부표 6〉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68

〈부표 7〉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추이 (8월 기준)	70
〈부표 8〉 비전형 근로자 추이(8월 기준)	72
〈부표 9〉 파견근로자 추이(8월 기준)	74
〈부표 10〉 용역근로자 추이(8월 기준)	76
〈부표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이(8월 기준)	78
〈부표 12〉 가정 내 근로자 추이(8월 기준)	80
〈부표 13〉 일일근로자 추이(8월 기준)	82
〈부표 14〉 시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84
〈부표 1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8월 기준)	86

I. 개요

-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되는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됨.
-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됨. 비기간제 근로자는 다시 반복갱신과 기대불가로 구분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며, 이를 제외한 한시적 근로자를 ‘비기간제 근로자’라 함.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황) 설문에서는 “지난주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됨.
 - ‘비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반복갱신’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기대불가’로 정의함.
 - 경황 설문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복갱신’에 해당됨.
 - 또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닐 수 없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로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현재 하는 업무

(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현재의 일자리에선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들이 ‘기대불가’에 해당됨.

-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로 구분됨.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함.
 - 용역근로자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청소용역, 경비용역 등)를 의미함.
 - 경찰 설문에서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일)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파견업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파견근로자로, 용역업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용역근로자로 분류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형태를 의미함.
 - 경찰 설문에서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됨.
 - 가정 내 근로자란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함.

- 경찰 설문에서 “지난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정 내 근로자로 분류되며, 파출부, 입주 부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가정에서’라고 응답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있음.
 - 일일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함.
 - 경찰 설문에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일일근로자에 해당되며, 건설 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이 이에 해당됨.
 - 유형의 구분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러 비정규직 유형을 띌 수 있음. 따라서 각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보다 큼.
- 본 통계집에 제시된 각종 통계는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3월에도 같은 조사를 수행함.
- 부가조사는 매년 3월과 8월에 두차례 시행되는데, 본 통계집은 8월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비정규직 추이를 정리할 것임.

II. 비정규직의 규모 추이

-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0%를 정점으로 2008년 8월 33.8%까지 하락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8월 34.9%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 8월 현재 32.5%를 기록하였음(표 II-1 참조).
 -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표 II-1>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2002. 8	14,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5.8)
2003. 8	14,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3)
2005. 8	14,968	9,486 (63.4)	5,483 (36.6)	3,615 (24.1)	1,907 (12.7)	1,044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5)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8	16,104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3)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5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2012. 8	17,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013. 8	18,24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2014. 8	18,776	12,699 (67.6)	6,077 (32.4)	3,508 (18.7)	2,112 (11.2)	2,032 (10.8)
2015. 8	19,312	13,041 (67.5)	6,271 (32.5)	3,638 (18.8)	2,206 (11.4)	2,236 (11.6)

주: 1) 괄호는 임금근로자 중 비중임.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들어가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들어가므로, 비정규직 전체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비정규직 전체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한시적 근로는 2004년 8월 24.7%에서 2015년 8월 18.8%로 감소했고, 비전형 근로의 경우 2004년 8월 13.4%에 비해 2015년 8월 11.4%로 감소했으며, 시간제 근로는 동기간 꾸준히 증가하여 비전형 근로자 보다 많아짐.
- 한시적 근로를 세분해 보면, 기간제 비중은 2005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중 18.2%를 차지하여 정점을 기록한 후 2015년 8월 14.8%까지 비중이 감소하였음(표 II-2 참조).
- 비기간제 근로 중 반복갱신은 2004년 8월 4.0%가 정점이었고, 2015년 8월 1.6%로 나타남. 기대불가는 2005년 8월 3.9%가 정점이었고, 2015년 8월 2.4%로 하락하였음.

<표 II-2> 한시적 근로자의 세부 근로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2002. 8	1,536(10.9)	281(2.0)	247(1.8)
2003. 8	2,403(17.0)	248(1.8)	362(2.6)
2004. 8	2,491(17.1)	580(4.0)	526(3.6)
2005. 8	2,728(18.2)	302(2.0)	585(3.9)
2006. 8	2,722(17.7)	465(3.0)	439(2.9)
2007. 8	2,531(15.9)	555(3.5)	460(2.9)
2008. 8	2,365(14.7)	374(2.3)	549(3.4)
2009. 8	2,815(17.1)	170(1.0)	521(3.2)
2010. 8	2,494(14.6)	305(1.8)	481(2.8)
2011. 8	2,668(15.2)	339(1.9)	436(2.5)
2012. 8	2,714(15.3)	289(1.6)	400(2.3)
2013. 8	2,761(15.1)	259(1.4)	412(2.3)
2014. 8	2,749(14.6)	353(1.9)	405(2.2)
2015. 8	2,860(14.8)	305(1.6)	473(2.4)

주: 괄호 안의 값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표 II-3>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보면, 1개월 미만 일하기로 계약한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2015년 8월 6.6%로 나타남.
- 3년을 초과해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7년 8월을 정점으로 그 이후 빠르게 감소했고, 2008년 8월 이후 집계 가능한 2년 초과 3년 이하의 계약을 한 사람들의 비중도 감소했음(표 II-3 참조).
- ※ 이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 7월 300인 이상, 2008년 7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의 영향으로 보임.

<표 II-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2002. 8	728(47.4)	373(24.3)	260(17.0)	90(5.9)		85(5.5)
2003. 8	947(39.4)	698(29.0)	463(19.3)	189(7.9)		105(4.4)
2004. 8	813(32.6)	684(27.4)	641(25.7)	241(9.7)		113(4.5)
2005. 8	824(30.2)	724(26.6)	791(29.0)	262(9.6)		127(4.6)
2006. 8	803(29.5)	747(27.4)	772(28.4)	259(9.5)		140(5.2)
2007. 8	512(20.2)	750(29.6)	851(33.6)	230(9.1)		189(7.5)
2008. 8	400(16.9)	765(32.3)	824(34.8)	191(8.1)	127(5.4)	59(2.5)
2009. 8	255(9.0)	1,186(42.1)	1,086(38.6)	178(6.3)	78(2.8)	33(1.2)
2010. 8	160(6.4)	856(34.3)	1,231(49.3)	152(6.1)	63(2.5)	33(1.3)
2011. 8	168(6.3)	925(34.7)	1,264(47.4)	172(6.5)	78(2.9)	60(2.2)
2012. 8	191(7.0)	905(33.3)	1,304(48.0)	165(6.1)	78(2.9)	71(2.6)
2013. 8	187(6.8)	964(34.9)	1,266(45.8)	160(5.8)	93(3.4)	90(3.3)
2014. 8	188(6.8)	1,012(36.8)	1,189(43.3)	200(7.3)	86(3.1)	73(2.7)
2015. 8	188(6.6)	1,045(36.5)	1,253(43.8)	228(8.0)	69(2.4)	76(2.7)

주: 괄호 안의 값은 기간제 근로자 중 각 고용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기간제 중 1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과 수는 모두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 8월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49.3%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8월에는 43.8%로 나타남(표 II-3 참조).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한 사람들의 비중도 증가하여 2009년 8월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42.1%까지 규모가 커졌으나, 2015년 8월에는 36.5%로 감소하였음.
- 파견근로는 2015년 8월 임금근로자 중 1.1%를 차지하였으며, 용역근로의 비중은 2008년 8월 4.0%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다소 주춤하고 있음(표 II-4 참조).

<표 II-4> 비전형 근로자의 세부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파 견	용 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2002. 8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2003. 8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2004. 8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8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197 (1.1)	673 (3.8)	614 (3.5)	75 (0.4)	962 (5.5)
2012. 8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2013. 8	204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2014. 8	194 (1.0)	604 (3.2)	524 (2.8)	58 (0.3)	805 (4.3)
2015. 8	210 (1.1)	656 (3.4)	494 (2.6)	55 (0.3)	876 (4.5)

주: 괄호 안의 값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8월 2.6%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 내 근로도 계속 감소하여 2015년 8월 5만 명 중반대로 떨어짐. 일일근로는 2007년 8월 이래 5%대에서 횡보 중이다가 2015년 8월 4.5%로 소폭 감소하였음.

Ⅲ. 비정규직의 특성별 추이

1. 비정규직의 인적 특성

- 성별 구성을 보면, 정규직에서는 남성(61.3%)이 여성(38.7%)보다 많지만, 비정규직에서는 여성(54.0%)이 남성(46.0%)보다 많음(표 Ⅲ-1 참조).
 - 한시적 근로와 시간제 근로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고, 비전형 근로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음.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용역, 일일근로를 제외하면 전

<표 Ⅲ-1> 근로형태별 성분포(2015년 8월)

(단위: 천 명, %)

	구 모			비 중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근로자 전체	19,312	10,878	8,434	100.0	56.3	43.7
정규직	13,041	7,997	5,044	100.0	61.3	38.7
비정규직	6,271	2,882	3,390	100.0	46.0	54.0
한시적 근로	3,638	1,747	1,891	100.0	48.0	52.0
시간제	2,860	1,367	1,493	100.0	47.8	52.2
반복갱신	305	163	142	100.0	53.5	46.5
기대불가	473	217	256	100.0	45.8	54.2
비전형 근로	2,206	1,137	1,069	100.0	51.5	48.5
파견	210	87	123	100.0	41.4	58.6
용역	656	350	306	100.0	53.3	46.7
특수형태근로	494	139	355	100.0	28.2	71.9
가정 내 근로	55	8	47	100.0	14.3	85.7
일일근로	876	607	269	100.0	69.3	30.7
시간제 근로	2,236	688	1,548	100.0	30.8	6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부 여성이 많음. 반복갱신은 이하에서 나오겠지만 그 특성이 정규직과 유사하여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일일근로에는 건설업 숙련공이 많아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이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2.2%를 정점으로 그 이후 비중이 작아져 2015년 26.5%를 기록하였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43.7%를 기록한 이후 2008년까지 하락(40.8%)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44.1%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40.2%로 감소하였음(표 III-2 참조).
 - 정점이었던 2004년과 가장 최근 시점인 2015년을 단순비교하면 남성 비정규직 비중은 6.7%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은 3.5%포인트 하락하여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
- 한시적 근로는 남녀 모두 전체 비정규직 비중 추이와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비전형 근로는 남성의 경우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움(표 III-2 참조).
 - 파견, 용역근로자는 남녀 모두 2007년까지 각각 4.6%, 5.2%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는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각각 4.0%와 5.1%로 소폭 하락함.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2003년 2.8%에서 2015년 1.3%로, 여성은 6.3%에서 4.2%로 비중이 감소함.
 - 일일근로는 남성의 경우 2003년 4.6%에서 2007년 6.0%까지 비중이 증가한 이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소폭 하락한 5.6%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3.0~4.5% 정도의 비중을 오가고 있음.
 - 시간제 근로는 남성의 경우 완만히 증가(2003년 3.3% → 2015년 6.3%)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남(2003년 11.7% → 2015년 18.4%).

<표 III-2> 성별 근로형태 분포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남성	23.5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26.6	26.5
	여성	32.9	39.6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40.2
한시적 근로	남성	13.9	19.1	22.6	21.5	21.5	20.8	18.2	17.7	16.1	16.4	16.5	15.8	16.2	16.1
	여성	15.8	24.4	27.6	27.8	26.6	24.4	23.6	26.2	23.5	24.1	22.8	22.8	21.9	22.4
기간제	남성	10.9	15.7	15.9	17.1	16.5	15.2	13.6	14.3	12.4	12.6	13.0	12.9	12.6	12.6
	여성	11.0	18.8	18.8	19.8	19.5	16.9	16.2	20.8	17.7	18.8	18.4	18.1	17.3	17.7
비전형 근로	남성	10.3	10.0	11.4	11.1	10.3	12.4	11.9	12.1	12.4	12.5	11.9	11.4	10.5	10.5
	여성	15.5	14.5	16.0	15.0	15.8	16.1	15.1	16.2	14.8	15.7	14.3	13.2	12.2	12.7
파견/용역	남성	3.1	3.0	3.4	3.3	3.8	4.6	4.6	4.4	4.5	4.7	4.7	4.4	3.8	4.0
	여성	3.0	3.4	3.9	4.1	4.6	5.2	5.2	5.4	5.2	5.4	5.6	5.0	4.8	5.1
특수형태근로	남성	4.0	2.8	3.6	2.8	2.1	2.3	1.9	2.1	2.0	2.0	1.8	1.8	1.8	1.3
	여성	7.7	6.3	6.6	6.3	6.7	6.3	6.1	6.2	5.5	5.6	4.7	4.6	4.1	4.2
일일근로	남성	3.2	4.6	4.7	5.4	4.9	6.0	6.0	6.0	6.2	6.2	5.7	5.5	5.2	5.6
	여성	2.6	3.6	4.4	4.0	3.6	4.4	3.8	4.4	3.6	4.5	3.8	3.1	3.0	3.2
시간제 근로	남성	2.8	2.9	3.3	3.6	3.9	3.9	4.0	3.9	4.4	4.7	5.0	5.1	5.5	6.3
	여성	10.0	11.7	13.0	11.7	12.3	12.7	12.7	15.2	16.4	16.5	17.4	17.3	17.7	18.4

주: 남성 및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비정규직의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 44.0%, 고졸 미만 24.2%, 대졸 이상 21.0%, 전문대졸 10.9%로 구성되어 있음(표 III-3 참조).

- <표 III-3>의 학력집단 분포는 절대적인 임금근로자 인구규모로 볼 때 고졸이 가장 많고, 전문대졸이 가장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각 학력집단 안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III-1 참조).

<표 III-3> 근로형태별 학력 분포(2015년 8월)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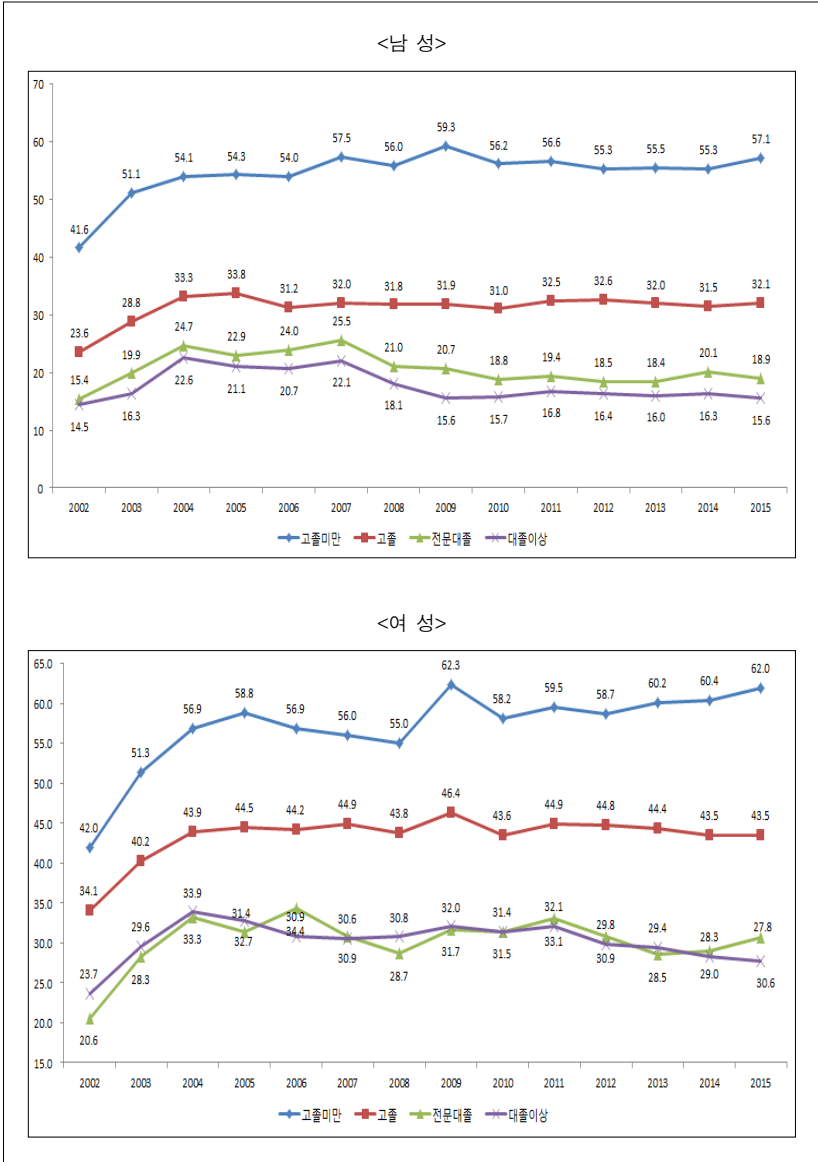
	규 모					비 중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 전체	19,312	2,529	7,437	2,809	6,538	100.0	13.1	38.5	14.5	33.9
정규직	13,041	1,013	4,681	2,126	5,221	100.0	7.8	35.9	16.3	40.0
비정규직	6,271	1,516	2,756	683	1,316	100.0	24.2	44.0	10.9	21.0
한시적 근로	3,638	817	1,409	454	958	100.0	22.5	38.7	12.5	26.3
기간제	2,860	674	1,027	360	799	100.0	23.6	35.9	12.6	27.9
반복갱신	305	37	107	54	107	100.0	12.1	35.1	17.7	35.1
기대불가	473	106	275	40	52	100.0	22.5	58.2	8.4	10.9
비전형 근로	2,206	722	1,025	183	275	100.0	32.7	46.5	8.3	12.5
파견	210	53	99	26	33	100.0	25.1	47.1	12.3	15.5
용역	656	262	274	49	72	100.0	39.9	41.7	7.4	10.9
특수형태근로	494	43	246	68	137	100.0	8.7	49.8	13.7	27.8
가정 내 근로	55	14	27	6	8	100.0	26.3	49.2	10.1	14.4
일일근로	876	384	420	41	31	100.0	43.8	48.0	4.7	3.5
시간제 근로	2,236	683	1,020	160	373	100.0	30.6	45.6	7.1	1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고졸 미만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에서 남녀 차이는 거의 없으며, 전체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55%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그림 III-1 참조).
 - 여성 고졸 임금근로자의 약 46%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여성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유사한 비정규직 비중을 보였으나 2015년 그 격차가 다소 증가함(2.8%p)
- <표 III-4>에서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아도 특수형태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 중 일일, 용역, 파견근로자의 비

[그림 III-1] 교육수준별 · 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III-4> 학력별 ·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고졸 미만	41.8	51.2	55.6	56.8	55.5	56.7	55.4	61.0	57.3	58.3	57.3	58.2	58.3	60.0
	고 졸	27.7	33.5	37.6	38.2	36.5	37.5	36.8	38.1	36.4	37.9	37.8	37.3	36.6	37.1
	전문대졸	17.8	23.9	28.8	27.1	29.1	28.1	24.7	25.8	24.6	25.7	24.3	23.2	24.3	24.3
	대졸 이상	17.2	20.3	26.1	24.7	24.1	24.8	22.3	21.0	21.0	21.9	20.9	20.8	20.6	20.1
한시적 근로	고졸 미만	21.8	31.1	33.5	33.1	32.6	29.4	29.0	35.4	29.6	29.8	28.9	30.8	31.3	32.3
	고 졸	14.2	21.6	24.4	24.7	23.3	21.7	20.2	21.4	19.3	19.1	19.8	19.1	18.5	18.9
	전문대졸	10.4	17.2	21.8	20.6	22.5	22.0	18.9	18.7	16.4	18.4	17.0	15.7	16.4	16.2
	대졸 이상	11.1	15.0	20.0	18.8	18.9	19.2	16.8	14.8	15.1	16.0	15.0	14.8	15.0	14.6
기간제	고졸 미만	16.1	24.3	23.4	22.9	24.4	21.2	19.8	27.6	22.8	23.7	23.5	25.1	25.8	26.6
	고 졸	10.1	17.3	16.8	18.3	17.6	15.0	13.8	16.7	14.2	14.3	15.1	15.0	13.7	13.8
	전문대졸	8.0	13.4	14.7	16.5	16.4	16.0	14.5	15.8	12.8	15.1	14.3	12.7	13.0	12.8
	대졸 이상	9.1	12.4	14.0	15.7	14.2	14.2	13.2	12.7	11.8	12.3	12.2	12.2	12.0	12.2
비전형 근로	고졸 미만	21.2	23.3	25.7	25.8	27.0	30.3	28.7	29.9	30.0	31.8	30.7	29.2	27.5	28.6
	고 졸	12.9	11.9	13.9	13.4	13.5	15.6	15.6	15.7	15.2	16.5	15.7	15.0	13.8	13.8
	전문대졸	7.1	7.1	7.8	6.8	6.8	6.5	6.3	7.8	8.0	6.9	6.1	6.5	6.5	6.5
	대졸 이상	5.3	4.9	6.1	5.4	4.5	4.9	4.9	5.6	5.0	5.1	4.4	4.3	3.9	4.2
파견	고졸 미만	0.4	0.6	0.9	0.7	1.1	1.1	0.9	1.0	1.8	1.5	1.9	2.0	1.6	2.1
	고졸	0.9	0.9	0.9	0.9	1.0	1.4	1.1	1.0	1.5	1.5	1.4	1.3	1.3	1.3
	전문대졸	0.8	0.9	1.0	1.0	0.6	1.3	1.0	1.1	1.2	0.7	0.9	1.0	1.0	0.9
	대졸 이상	0.5	0.3	0.5	0.6	0.5	0.5	0.6	0.9	0.7	0.7	0.8	0.5	0.5	0.5
용역	고졸 미만	5.8	6.6	7.9	8.3	9.6	10.6	11.1	10.5	9.6	10.2	10.8	10.6	9.9	10.4
	고 졸	2.1	2.1	2.5	2.6	3.1	3.7	4.3	3.9	3.8	4.4	4.6	4.1	3.5	3.7
	전문대졸	0.6	0.8	1.2	1.2	1.0	1.5	1.4	1.8	2.0	1.8	1.4	1.7	1.7	1.7
	대졸 이상	0.3	0.6	0.5	0.5	0.4	0.7	0.9	0.9	0.9	0.9	0.8	0.8	0.9	1.1
특수형태 근로	고졸 미만	5.0	3.7	3.9	3.5	4.0	3.4	2.2	3.2	2.7	2.6	2.3	2.1	1.8	1.7
	고 졸	6.7	4.8	5.7	4.9	4.6	5.2	5.0	4.8	4.2	4.6	4.1	4.0	3.8	3.3
	전문대졸	4.6	4.6	4.2	3.5	3.8	2.7	3.1	3.1	3.1	3.1	2.7	2.4	2.5	2.4
	대졸 이상	4.0	3.6	4.4	4.0	3.2	3.2	2.9	3.4	3.0	2.8	2.3	2.4	2.2	2.1
일일근로	고졸 미만	8.0	11.4	12.5	13.1	12.2	16.0	15.6	16.1	16.1	17.8	16.1	14.7	14.4	15.2
	고 졸	2.4	3.9	4.5	5.0	4.6	5.6	5.8	6.0	5.6	6.2	5.8	5.6	5.3	5.7
	전문대졸	0.8	0.9	1.0	1.2	1.2	1.1	0.8	1.7	1.5	1.4	0.9	1.3	1.3	1.5
	대졸 이상	0.1	0.4	0.5	0.4	0.3	0.4	0.5	0.4	0.4	0.6	0.6	0.4	0.4	0.5
시간제 근로	고졸 미만	8.8	10.2	12.2	12.1	13.3	14.2	15.2	16.8	19.2	20.2	22.3	22.5	24.2	27.0
	고 졸	6.1	7.3	8.0	7.7	8.0	8.6	9.0	10.3	10.8	11.5	12.2	12.5	12.7	13.7
	전문대졸	2.5	3.6	3.3	3.1	3.9	3.6	2.5	3.5	4.3	4.3	4.7	5.0	5.1	5.7
	대졸 이상	3.7	3.8	4.5	4.0	4.4	4.0	4.0	4.5	5.3	5.0	5.1	5.2	5.9	5.7

주 : 각 학력 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중은 2003년부터 2015 까지 내내 극히 미미하지만, 특수형태근로에서는 2015년 기준 고졸 미만보다 높은 2.1% 비중을 기록함. 이는 특수형태근로에 학습지교사 같은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임.

- 비정규직 형태별 연령분포를 보면, 3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20%를 넘고, 한시적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비전형 근로자는 50대에, 시간제 근로자는 15~29세(27.1%)와 60세 이상(29.7%)에 가장 많이 분포함(표 III-5 참조).
 - 반면 정규직은 3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정규직 중 4.9%만이 60세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21.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II-2]는 5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여 성별로 2003년 8월과 2015년 8월 사이의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녀 모두 U자형의 비정규직 비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시점인 2015년과 남녀 비정규직 비중이 비교적 유사한 해가 2003년이므로 두 시점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함.
 - U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노동시장 정착과정 중인 청년기에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높다가 정착에 성공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진 후, 남성의 경우는 50대부터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하고 여성은 출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화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 저점은 2003년 35~39세, 2015년 30~34세로 30대에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함.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와 퇴장 연령대에서는 2003년보다 2015년의 비정규직 비중이 더 증가했으나, 핵심연령층에서는 2003년보다 2015년의 비정규직 비중이 떨어져 더 강한 U자형으로 변화됨.

<표 III-5> 근로형태별 연령 분포(2015년 8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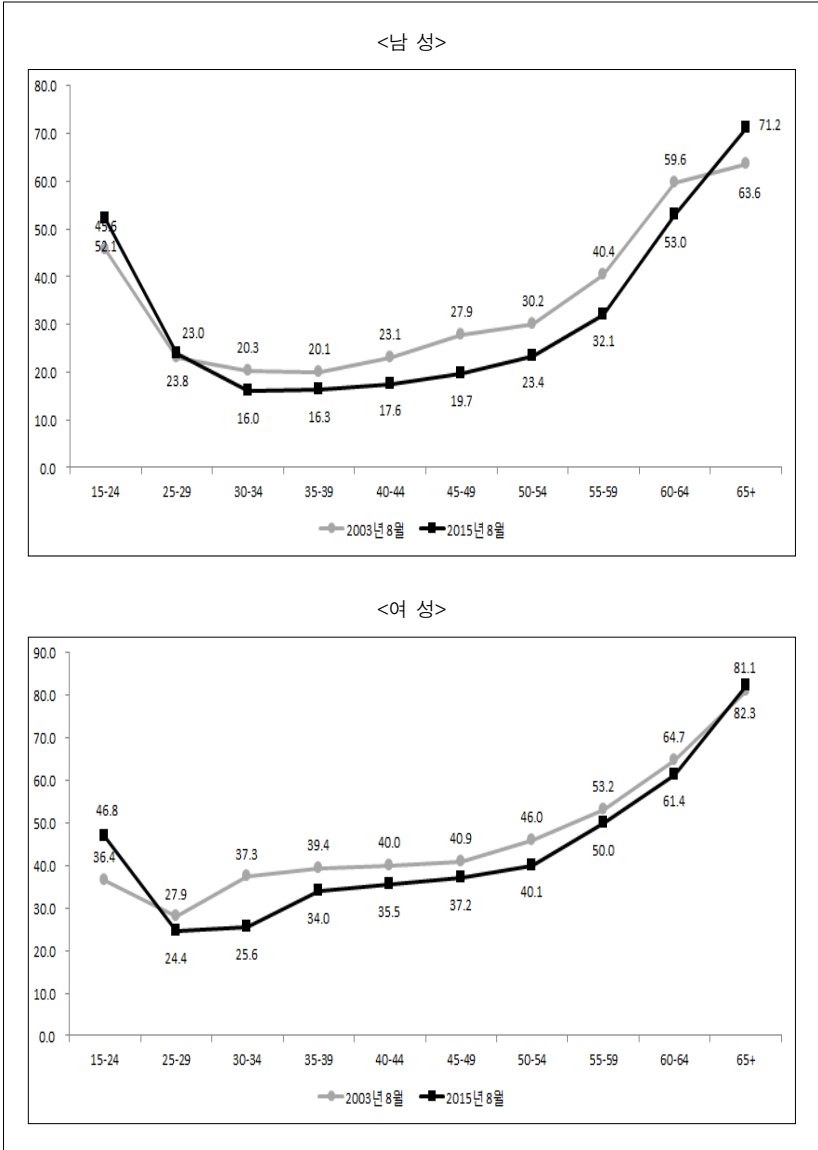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임금근로자 전체	19.4	24.9	25.4	20.2	10.1	100.0
정규직	18.6	29.0	27.8	19.6	4.9	100.0
비정규직	20.9	16.2	20.4	21.5	21.0	100.0
한시적 근로	21.1	18.6	19.6	18.6	22.1	100.0
기간제	20.5	18.2	18.4	18.1	24.8	100.0
반복갱신	23.9	26.9	26.3	14.0	8.9	100.0
기대불가	23.0	15.9	22.5	24.4	14.2	100.0
비전형 근로	8.7	12.5	22.1	30.4	26.4	100.0
파견	16.2	17.3	21.1	22.5	22.8	100.0
용역	8.4	9.5	12.7	27.5	41.9	100.0
특수형태근로	6.2	23.3	33.9	28.1	8.5	100.0
가정 내 근로	5.9	21.9	21.9	23.6	26.7	100.0
일일근로	8.4	6.8	22.9	36.7	25.1	100.0
시간제 근로	27.1	10.8	15.4	17.1	29.7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년 8월.

- 여성은 2003년과 2015년 모두 비정규직 비중의 저점이 25~29세였고, 30~34세 비정규직 비중은 동 기간에 꾸준히 감소해 왔음.
 - 여기서는 두 해의 수치만 제시되었지만, 나머지 연도들도 보면 30~34세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치 변화는 여성의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늦춰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추측됨.
- 60세 이상까지 일을 계속하는 경우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기간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2004년 또는 2005년 정도를 정점으로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국제금융위기가 있는 2009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후 다소 하락한 상태에서 회복

[그림 Ⅲ-2] 5세 단위 구간별 ·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하는 추이를 보임(표 III-6 참조).

- 파견·용역은 국제금융위기(2009년)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표 III-6 참조).
 - 2003년에 비해 2015년에 특수형태근로는 전 연령대에서 비중이 감소하였고, 일일근로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만 비중이 증가함.
- 시간제는 60세 이상의 경우 2003년 14.6%에서 2015년 34.0%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15~29세에서도 2003년 7.4%에서 2015년 16.2%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표 III-6 참조).
 - 노동시장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 40, 50대에서는 증가하지 않거나 소폭 증가했음.
 - 주로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퇴장하는 연령대에서 빠르게 증가했으며, 주력 연령대에서는 증가폭이 크지 않아 왔음.

2. 비정규직의 사업체 특성

- <표 III-7>은 2015년 8월 조사를 이용해 근로형태별 산업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사업서비스업(13.8%)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건설업과 도소매업에도 많은 반면, 정규직은 제조업(26.5%)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은 특정 산업에 특정 근로형태가 집중되는 분포를 보임.
 - 기간제는 사업서비스업(17.7%)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7%), 교육서비스업(11.3%) 등에도 많이 있음.
 - 비전형 근로는 건설업(22.0%)과 사업서비스업(32.3%)에 절반 이상이 모여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용역은 특성상 사업서비스업에 대부분(90.1%)이 몰려 있으며, 파견도 사업서비스업(33.5%)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수형태근로는 금융보험업(44.8%), 도소매업(22.4%), 교육서비

<표 III-6> 연령별·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15~29세	23.9	31.7	35.0	35.0	33.0	33.5	32.9	34.0	33.5	34.0	33.8	34.0	34.6	35.0
	30~39세	22.5	26.3	32.1	30.4	29.8	29.8	26.7	25.2	23.3	24.3	23.1	22.2	21.8	21.2
	40~49세	27.9	31.1	35.9	36.3	34.1	34.1	31.6	32.3	29.8	30.5	29.1	27.2	26.6	26.0
	50~59세	37.0	39.9	43.1	42.8	41.9	42.7	39.6	40.6	39.3	39.6	37.6	37.1	34.5	34.6
	60세 이상	55.2	65.9	67.8	66.6	69.0	65.9	65.7	72.7	69.6	70.5	70.5	67.5	68.7	67.4
한시적 근로	15~29세	14.9	23.3	26.2	26.4	25.4	24.1	23.0	23.9	22.2	21.8	20.4	20.9	20.9	20.5
	30~39세	11.1	16.7	21.2	20.0	20.3	19.9	17.2	15.4	14.1	15.3	15.2	14.0	13.7	14.1
	40~49세	14.1	19.0	22.4	22.4	20.6	18.9	17.0	16.9	15.2	15.7	15.2	14.5	14.2	14.5
	50~59세	19.3	24.9	27.6	25.8	25.6	23.0	21.2	22.4	19.7	19.7	19.2	19.1	17.6	17.3
	60세 이상	28.2	40.5	40.7	40.7	41.9	38.9	38.1	49.8	43.3	42.5	42.3	41.3	42.8	41.1
기간제	15~29세	11.5	19.6	19.4	21.8	20.1	18.8	17.7	20.2	17.8	17.7	16.7	17.1	16.7	15.7
	30~39세	7.9	12.8	13.6	14.8	14.5	13.8	12.3	12.2	10.2	11.4	11.8	11.2	10.3	10.8
	40~49세	10.0	14.4	14.7	15.4	14.8	12.3	11.3	12.2	10.3	11.3	11.4	11.0	10.0	10.7
	50~59세	14.9	20.0	19.5	19.4	19.2	16.1	14.5	17.5	15.1	14.6	15.3	14.6	13.5	13.3
	60세 이상	21.8	33.4	30.9	30.5	33.9	29.5	29.2	43.3	36.4	37.1	36.0	36.5	38.0	36.3
비전형 근로	15~29세	7.4	7.2	8.3	7.0	5.7	6.9	6.3	6.5	6.0	6.0	6.1	5.1	4.9	5.1
	30~39세	11.0	9.8	11.1	10.3	9.3	9.8	9.3	9.6	8.3	8.0	6.8	6.8	6.2	5.7
	40~49세	13.5	12.9	14.4	14.2	14.4	15.4	14.3	15.4	13.8	14.2	12.9	11.6	10.4	9.9
	50~59세	19.6	18.0	19.2	19.5	20.3	22.2	21.0	21.2	22.1	22.2	19.9	18.9	16.9	17.2
	60세 이상	31.0	32.5	35.7	32.1	34.6	35.5	35.0	31.5	33.0	35.8	34.5	31.0	28.9	29.8
파견	15~29세	1.0	0.8	0.9	1.0	0.9	1.4	0.9	1.4	1.5	1.1	1.2	1.2	1.0	0.9
	30~39세	0.6	0.7	0.7	0.8	0.6	0.9	0.8	0.9	0.8	0.8	0.9	0.8	0.9	0.8
	40~49세	0.4	0.7	0.9	0.6	0.8	1.1	0.9	0.9	1.0	1.2	1.0	0.7	0.8	0.9
	50~59세	0.5	0.3	0.6	0.6	1.2	0.8	0.8	0.7	1.4	1.3	1.3	1.4	1.1	1.2
	60세 이상	0.3	1.3	0.9	0.8	1.4	1.1	0.9	1.1	2.6	2.0	2.6	2.5	2.1	2.5
용역	15~29세	0.8	1.3	1.4	1.5	1.4	1.8	1.9	1.9	1.8	2.0	1.9	1.4	1.3	1.5
	30~39세	1.0	0.7	1.2	1.2	1.1	1.5	1.7	1.6	1.3	1.4	1.4	1.3	1.1	1.3
	40~49세	1.8	1.8	1.8	2.1	2.5	2.6	2.4	2.4	2.2	2.5	2.3	2.3	1.7	1.7
	50~59세	6.6	6.1	6.8	6.5	7.0	7.5	8.0	6.8	6.4	6.3	6.2	5.7	4.7	4.6
	60세 이상	13.8	14.1	15.8	14.7	17.4	18.0	19.2	16.3	15.3	16.4	16.5	14.3	14.2	14.1
특수 형태 근로	15~29세	4.2	3.0	3.8	2.5	1.8	1.7	2.1	1.5	1.3	1.5	1.2	0.9	1.0	0.8
	30~39세	6.2	5.2	5.4	5.1	4.5	4.4	4.0	4.4	4.0	3.4	2.6	2.9	2.6	2.4
	40~49세	6.5	4.9	5.7	5.3	5.3	5.5	5.2	5.5	4.7	4.8	4.6	4.3	4.1	3.4
	50~59세	5.5	3.6	4.4	3.9	4.3	4.2	3.2	3.8	3.8	4.3	3.8	3.6	3.5	3.6
	60세 이상	4.5	3.5	4.5	3.8	4.9	4.1	3.2	3.1	2.5	2.9	2.6	2.7	1.8	2.1
일일 근로	15~29세	0.9	2.2	2.1	2.2	1.7	1.9	1.5	1.7	1.3	1.5	1.8	1.6	1.5	2.0
	30~39세	2.1	2.7	3.3	3.2	2.8	3.0	2.9	2.6	2.1	2.3	1.7	1.7	1.6	1.2
	40~49세	4.1	5.3	5.8	6.2	5.8	6.5	6.2	6.8	5.7	5.9	5.1	4.3	3.9	4.1
	50~59세	5.9	7.5	7.4	8.4	7.7	10.2	10.1	10.3	10.8	10.7	9.1	8.4	7.8	8.2
	60세 이상	8.6	10.8	13.5	11.5	10.2	13.0	12.5	11.7	12.5	14.6	13.2	11.5	11.0	11.3
시간제 근로	15~29세	5.8	7.4	7.3	8.0	7.9	8.9	8.8	10.1	11.5	12.0	13.6	14.0	15.5	16.2
	30~39세	5.0	5.5	6.0	5.3	5.7	5.1	5.0	5.2	5.6	5.3	4.9	5.1	5.1	5.0
	40~49세	5.2	5.4	6.8	5.9	6.3	6.1	6.3	7.8	7.4	7.2	7.2	6.9	6.9	7.0
	50~59세	6.0	6.3	7.7	7.1	6.9	7.6	7.5	7.7	8.4	9.2	9.5	8.9	8.2	9.8
	60세 이상	12.0	14.6	17.2	16.3	19.9	19.8	21.7	23.1	28.4	28.6	31.9	31.6	33.5	34.0

주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III-7> 근로형태별 산업 분포(2015년 8월)

(단위 : %)

	근로형태별 산업 분포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한시 근로				비전형	기간제					시간제
	정규직	정규직		한시 근로	기간제	반복 갱신	기대 불가		파견	용역	특수 근로	가내 근로	일일 근로	
농어업	0.6	0.3	1.4	0.6	0.5	0.0	1.7	2.8	0.0	0.0	0.1	0.5	6.9	1.4
광업	0.1	0.1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20.7	26.5	8.7	11.3	10.4	15.0	14.8	3.6	6.5	0.7	0.6	38.0	5.2	5.2
전기 등	0.5	0.6	0.2	0.3	0.3	0.0	0.3	0.0	0.5	0.0	0.0	0.0	0.0	0.2
하수 등	0.4	0.5	0.3	0.4	0.3	0.5	0.4	0.1	0.0	0.0	0.0	0.0	0.2	0.1
건설업	7.2	5.1	11.6	6.3	6.0	3.3	10.3	22.0	8.2	2.8	0.4	2.0	53.8	4.8
도소매	11.6	12.2	10.3	7.6	6.2	12.6	13.3	8.5	13.6	0.0	22.4	9.9	5.1	13.5
운수	4.1	4.9	2.4	2.7	2.3	2.6	5.1	1.6	1.6	0.6	2.2	0.0	2.0	1.4
숙박음식	7.4	6.4	9.4	6.4	4.1	6.9	19.8	4.7	4.6	1.1	0.1	2.0	9.6	18.0
출판 등	3.7	4.4	2.2	2.9	2.8	6.1	1.8	0.9	3.3	0.5	1.1	6.4	0.1	1.2
금융보험	3.9	3.5	4.6	1.9	1.7	6.3	0.3	10.1	0.0	0.1	44.8	2.0	0.0	1.0
부동산임대	1.9	1.6	2.5	3.1	3.2	2.9	2.9	2.0	2.0	2.2	4.6	1.6	0.2	1.5
전문과학	4.7	5.8	2.4	3.5	3.5	6.0	2.1	0.6	2.7	0.2	0.2	7.1	0.3	1.3
사업서비스	6.0	2.3	13.8	15.8	17.7	12.8	6.1	32.3	33.5	90.1	2.0	3.3	8.9	5.5
공공행정	4.9	5.2	4.3	7.2	9.0	0.6	0.5	0.6	6.4	0.0	0.0	0.9	0.0	7.7
교육	7.6	7.1	8.6	10.0	11.3	5.3	5.4	3.6	1.7	0.6	14.2	1.3	0.0	12.6
보건사회복지	8.8	8.1	10.2	14.1	15.7	12.0	5.5	1.7	12.4	0.3	0.1	7.1	0.8	14.6
예술 및 여가	1.5	1.2	2.2	1.9	1.8	1.3	3.3	0.7	0.6	0.0	2.5	0.0	0.3	3.5
협회, 개인서비스	4.0	4.0	4.2	3.5	3.1	4.5	5.1	3.5	2.5	0.7	4.7	2.7	5.4	5.4
가구내 등	0.3	0.2	0.6	0.3	0.2	0.2	1.3	0.7	0.0	0.0	0.0	15.0	1.0	1.0
국제	0.1	0.1	0.1	0.1	0.1	0.2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스업(14.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가정 내 근로는 제조업(38.0%)에, 일일근로는 건설업(53.8%)에 몰려 있음.
 - 시간제 근로는 도소매업(13.5%), 숙박 및 음식점업(18.0%), 교육 서비스업(12.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6%)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각 산업 내에서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37.0%) → 2015년(32.5%)에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내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함(표 III-8 참조).
- 2015년 기준으로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4.1%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인 산업은 사업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가구 내 서비스업임.
 - 건설업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이 2004년 31.1%에서 2015년 12.3%로 눈에 띄게 감소함. 이는 주로 시간제 중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하는 근로자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
 - 시간제 근로의 경우 비교적 전체 산업에서 고루 비중이 증가함.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16.7%→28.2%), 도소매업(9.8%→13.5%), 보건 및 사회복지업(3.3%→19.3%), 공공행정(8.3%→18.0%), 예술 및 여가(11.4%→27.3%) 등에서 두드러지게 비중이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의 비중은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함(표 III-9 참조).
- 파견근로의 경우 임금근로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사업서비스업에서는 그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2004년 4.7%에서 2015년에는 6.0%로 증가함.
 -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절반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용역근로형태로

<표 III-8> 산업별 · 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 → 2015년)

(단위 : %)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한시적 근로 전체		기간제			
	2004. 8	2015. 8	2004. 8	2015. 8	2004. 8	2015. 8	2004. 8	2015. 8
농어업	75.6	69.8	46.1	17.3	39.6	11.1	17.0	25.5
광업	16.8	27.5	16.8	27.5	2.8	8.7	0.0	0.0
제조업	23.3	13.6	17.9	10.3	10.6	7.4	3.1	2.9
전기 등	23.2	14.1	20.8	10.8	13.3	9.5	3.1	3.7
하수 등	21.4	19.6	17.7	16.0	10.7	12.0	1.2	3.3
건설업	63.3	52.3	37.6	16.5	31.1	12.3	7.3	7.7
도소매	36.1	28.9	21.5	12.4	12.4	7.9	9.8	13.5
운수	28.1	18.9	17.0	12.6	10.1	8.5	2.6	4.1
숙박음식	42.6	41.5	28.4	16.3	15.6	8.3	16.7	28.2
출판 등	31.4	19.4	27.0	14.9	20.4	11.2	3.0	3.7
금융보험	44.1	38.6	20.5	9.1	14.9	6.3	2.6	3.0
부동산임대	43.8	43.6	30.6	31.0	18.0	24.8	7.6	9.4
전문과학	27.7	16.5	22.4	13.9	16.8	10.8	2.7	3.1
사업서비스	77.5	74.1	47.6	49.2	37.4	43.3	5.2	10.6
공공행정	22.5	28.6	18.9	27.4	15.8	27.0	8.3	18.0
교육	37.2	36.8	26.6	25.1	20.6	22.2	14.3	19.4
보건사회복지	26.6	37.7	24.0	30.2	17.5	26.5	3.3	19.3
예술 및 여가	45.0	48.1	35.9	24.5	27.7	17.6	11.4	27.3
협회, 개인서비스	30.2	33.7	17.9	16.3	11.7	11.4	8.8	15.4
가구내 등	78.3	56.9	36.6	17.7	20.2	6.7	42.9	36.7
국제	28.5	17.2	25.9	17.2	15.5	14.6	2.5	0.0

주 : 1) 각 산업 내에서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2) 9차 산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5년을 비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III-9> 비전형 근로의 산업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 → 2015년)

(단위 : %)

	비전형 근로									
	전 체		파 견		용 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2004. 8	2015. 8	2004. 8	2015. 8	2004. 8	2015. 8	2004. 8	2015. 8	2004. 8	2015. 8
농어업	30.7	48.6	0.0	0.0	0.0	0.0	2.1	0.2	28.2	48.1
광 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5.9	2.0	0.3	0.3	0.1	0.1	1.3	0.1	2.5	1.1
전기 등	4.1	1.1	0.0	1.1	0.0	0.0	1.7	0.0	0.0	0.0
하수 등	2.4	2.1	0.0	0.0	0.0	0.4	2.4	0.0	0.0	1.7
건설업	26.7	34.9	0.8	1.2	1.0	1.3	2.2	0.1	24.0	33.9
도소매	13.0	8.4	1.5	1.3	0.0	0.0	9.1	5.0	2.2	2.0
운 수	12.3	4.5	0.3	0.4	0.6	0.5	9.9	1.4	2.1	2.2
숙박음식	8.3	7.2	0.3	0.7	0.3	0.5	2.6	0.0	5.4	5.9
출판 등	5.6	2.8	1.4	1.0	0.1	0.5	3.1	0.8	0.2	0.2
금융보험	26.2	29.8	0.3	0.0	0.0	0.1	25.8	29.5	0.1	0.0
부동산임대	12.5	12.1	1.6	1.2	2.7	3.9	6.9	6.2	1.7	0.6
전문과학	5.8	1.5	0.8	0.6	0.6	0.1	3.8	0.1	0.5	0.3
사업서비스	65.8	61.1	4.7	6.0	56.9	50.7	2.4	0.8	6.3	6.7
공공행정	2.7	1.5	0.5	1.4	0.2	0.0	0.5	0.0	0.7	0.0
교 육	7.3	5.4	0.1	0.2	0.0	0.3	6.5	4.8	0.4	0.0
보건사회복지	1.4	2.2	0.2	1.5	0.1	0.1	0.7	0.0	0.2	0.4
예술 및 여가	8.9	5.5	0.5	0.4	0.2	0.0	3.5	4.3	5.4	1.0
협회, 개인서비스	10.8	9.8	1.1	0.7	0.7	0.6	5.6	3.0	3.3	6.1
가구내 등	43.9	24.9	0.0	0.0	0.0	0.0	6.5	0.0	26.9	13.9
국 제	4.6	0.0	0.0	0.0	0.0	0.0	4.6	0.0	0.0	0.0

주 : 1) 각 산업 내에서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임.

2) 9차 산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5년을 비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일하고 있는데, 2004년(56.9%)에 비해 2015년에는 50.7%로 다소 감소함.

- 한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금융보험업에서 비중이 큰데, 2004년(25.8%)에 비해 2015년에는 3.7%포인트 증가하여 29.5%를 기록함.
 - 건설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일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4.0%에서 2015년에는 33.9%로 증가함.
 - 한편 2015년 농림어업 임금근로자의 48.1%가 일일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I-10>은 2015년 8월 조사를 이용해 근로형태별 직종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있는 직종은 단순노무직(31.2%)으로 둘째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전문가의 약 두 배에 달함.
- 정규직은 사무직(24.7%)과 전문가(26.6%)에 많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8.6%가 있음.
 - 기간제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31.0%가 분포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사무직에는 각각 23.3%, 15.3%로 나타남.
 -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자는 정규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직종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 비전형 근로의 세부형태들은 일부 직종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임. 특히 청소·경비와 같은 일자리가 많은 용역근로는 단순노무직(67.2%)에 많이 있으며, 보험업, 쿼,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는 판매직(64.3%)에 많이 있고, 전문가(16.3%), 단순노무직(9.5%)에도 상당수 분포함.
 - 가정 내 근로(54.5%), 일일근로(48.1%)도 단순노무직에 절반 가까이 분포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는 단순노무직(37.6%)에 뒤이어 서비스직(20.3%), 전문가(17.0%), 판매업(11.5%)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표 III-11>은 직종 안에서 각 근로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중은 전문가,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을

<표 III-10> 근로형태별 직업 분포(2015년 8월)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숙련	기능직	조립· 조작	단순 노무	전체
임금근로자	1.5	22.2	21.3	9.5	8.6	0.3	8.9	11.8	15.9	100.0
정규직	1.9	24.7	26.6	8.4	7.1	0.2	8.5	14.1	8.6	100.0
비정규직	0.7	16.9	10.4	12.0	11.7	0.4	9.8	6.9	31.2	100.0
한시적 근로	1.1	21.7	14.6	10.3	5.9	0.4	7.2	8.8	30.0	100.0
기간제	1.3	23.3	15.3	9.2	4.6	0.3	6.4	8.6	31.0	100.0
반복갱신	0.4	25.8	19.7	9.4	10.0	0.0	7.3	9.1	18.2	100.0
기대불가	0.8	9.5	7.2	17.6	11.3	1.5	11.7	9.4	31.0	100.0
비전형 근로	0.1	6.0	3.5	6.0	17.8	0.5	16.3	5.9	43.8	100.0
파견	0.1	14.1	9.2	7.9	16.0	0.0	9.9	12.1	30.8	100.0
용역	0.2	1.5	5.6	5.9	3.0	0.3	6.9	9.3	67.2	100.0
특수형태근로	0.0	16.3	2.8	3.0	64.3	0.0	0.3	3.8	9.5	100.0
가정 내 근로	0.0	17.2	9.1	6.9	4.0	0.0	1.1	7.1	54.5	100.0
일일근로	0.0	0.4	0.4	7.3	2.6	1.0	36.6	3.6	48.1	100.0
시간제 근로	0.2	17.0	7.5	20.3	11.5	0.2	3.5	2.2	37.6	100.0

주 : 각 세부 근로형태별 근로자 중 각 직종 내 세부 근로형태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년 8월.

제외한 대부분 직종에서 감소함.

- 2004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0%에서 2015년 32.5%로 감소한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함.
- 근로형태별 단순노무직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보면, 시간제 근로만 증가함.
- 특히 단순노무직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16.2% → 27.4%)에서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 시간제 근로는 서비스직(13.6% → 24.6%)과 판매직(9.7% → 15.5%)에서도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이 크게 증가함.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비중이 감소하였음.
- 일일근로의 경우 기능직(13.3% → 18.6%)과 농어업숙련(17.7% →

<표 III-11> 직종별·근로형태별 비중 변화(2004년 → 2015년)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숙련	기능직	조립· 조작	단순 노무
비정규직	2004	18.7	29.4	23.0	40.4	47.4	65.6	45.4	23.1	62.9
	2015	15.0	24.8	15.8	40.7	44.4	49.6	35.8	19.1	63.6
한시적 근로	2004	17.2	22.8	19.7	27.1	20.7	45.0	28.8	17.2	37.6
	2015	13.9	18.4	12.9	20.4	13.0	30.8	15.2	14.0	35.5
기간제	2004	12.1	16.2	14.0	17.0	12.4	36.1	21.9	9.9	27.4
	2015	12.2	15.5	10.6	14.4	7.9	16.4	10.6	10.8	28.9
비전형 근로	2004	2.7	5.7	3.5	10.4	26.7	23.1	18.4	7.5	31.5
	2015	0.6	3.1	1.9	7.2	23.7	21.3	20.9	5.7	31.5
파견	2004	0.4	0.5	0.4	0.8	2.6	0.7	1.2	0.4	0.9
	2015	0.1	0.7	0.5	0.9	2.0	0.0	1.2	1.1	2.1
용역	2004	0.5	0.1	0.6	1.9	1.2	2.9	1.9	2.2	11.8
	2015	0.5	0.2	0.9	2.1	1.2	4.3	2.6	2.7	14.3
특수형태 근로	2004	1.8	4.5	1.9	3.6	21.6	2.0	2.0	3.9	3.5
	2015	0.0	1.9	0.3	0.8	19.1	0.0	0.1	0.8	1.5
일일근로	2004	0.0	0.3	0.1	5.0	1.8	17.7	13.3	0.9	13.8
	2015	0.0	0.1	0.1	3.5	1.4	18.2	18.6	1.4	13.7
시간제 근로	2004	0.2	7.0	2.8	13.6	9.7	8.4	4.7	1.4	16.2
	2015	1.5	8.9	4.1	24.6	15.5	10.1	4.6	2.1	27.4

주 : 1) 각 직종 내 임금근로자 중 세부 근로형태의 비중임.

2) 6차 직종분류 자료는 2004년 이후 제공되어 2004년과 가장 최근인 2015년을 비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18.2%), 조립·조작 직종(0.9% → 1.4%)에서 증가함.

- 전체적인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과 세부 근로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 비정규직 형태별로 사업체 규모 분포를 보면, 비정규직은 1~4인(27.4%) 사업체, 정규직은 10~29인(21.9%) 사업체에 많이 분포함

(표 III-12 참조).

-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대부분 분포함.
- 사업체규모별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 1~4인의 경우 46.6% (2015년)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남(표 III-13 참조).
- 기간제 근로는 2004년에만 해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기간제 비중이 15% 이상이었고, 2005년 이후로는 10~99인 규모 사업체에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15 에는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는 10% 초반대, 10~99인은 10% 후반대의 비중을 보이는 형태로 변함.
- 근로형태별로 종사상지위 분포를 보면, 정규직은 대부분 상용직

<표 III-12> 근로형태별 사업체규모 분포(2015년 8월)

(단위 : %)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 체
임금근로자	18.7	17.7	22.3	19.3	9.6	12.4	100.0
정규직	14.5	16.0	21.9	20.5	11.3	15.8	100.0
비정규직	27.4	21.0	23.1	17.0	6.2	5.3	100.0
한시적 근로	18.8	19.0	24.6	20.5	8.6	8.5	100.0
기간제	15.8	17.4	25.4	22.6	9.4	9.4	100.0
반복갱신	17.0	21.0	24.6	16.9	9.7	10.8	100.0
기대불가	37.9	27.3	19.5	10.4	3.1	1.7	100.0
비전형 근로	31.2	23.5	25.1	15.5	3.8	0.8	100.0
파견	29.4	18.3	19.1	18.5	12.1	2.5	100.0
용역	23.1	25.0	29.5	17.1	4.0	1.3	100.0
특수형태근로	17.5	6.6	37.7	33.3	4.7	0.3	100.0
가정 내 근로	62.2	17.0	11.9	4.2	3.7	1.3	100.0
일일근로	45.0	33.2	17.1	3.4	0.9	0.4	100.0
시간제 근로	41.0	22.5	19.1	10.2	3.0	4.2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82.7%)이며, 비정규직 중 상용직은 35.9%인 것으로 나타남(표 III-14 참조).

- 비정규직 중에서는 임시직의 비중이 큼(44.6%).
 - 반복갱신이 가능한 한시적 근로자는 상용직 비중이 60.1%로 정규직의 상용직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파견, 용역의 상용직 비중은 비전형 근로 가운데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는 임시·일용근로에 대부분 속했음.
 - 특수형태근로의 대부분(89.7%)은 임시근로에 분포함.
- 종사상지위로 변화형태 분포의 추세를 보면, 상용직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17~20% 수준을 특별한 추세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

<표 III-14> 근로형태별·종사상지위별 규모 및 분포(2015년 8월)

(단위: 천명, %)

	규 모			비 중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임금근로자	12,675	5,106	1,531	100.0	67.5	27.2	8.2
정규직	10,496	2,394	151	100.0	82.7	18.9	1.2
비정규직	2,179	2,712	1,381	100.0	35.9	44.6	22.7
한시적 근로	1,896	1,471	271	100.0	54.1	41.9	7.7
기간제	1,641	1,031	188	100.0	59.7	37.5	6.8
반복갱신	213	88	5	100.0	60.1	25.0	1.3
기대불가	43	352	78	100.0	10.5	87.0	19.2
비전형 근로	563	721	923	100.0	26.6	34.1	43.7
파견	120	71	19	100.0	61.9	36.6	9.7
용역	430	154	72	100.0	71.1	25.5	11.9
특수형태근로	7	470	17	100.0	1.3	89.7	3.3
가정 내 근로	6	25	24	100.0	10.2	43.5	41.2
일일근로	0	0	876	100.0	0.0	0.0	108.8
시간제 근로	228	1,418	590	100.0	11.2	69.8	2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5년 8월.

이며, 임시직 중 비정규직 비중은 적어도 2009년 이후로는 4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53.1%를 기록함(표 III-15 참조).

- 상용직과 임시직 중 한시적 근로의 비중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용직 중 한시적 근로 비중은 뚜렷이 감소해 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한시적 근로 안에서도 특히 기간제에서 뚜렷이 나타남.
- 상용직 중 비전형 근로 비중은 2004년 4.8%였으나 2010년 이후 5%대에서 횡보(2015년 4.4%)를 유지하고 있고, 일용직 중 비전형 근로 비중은 2004년 41.4%였으나 2009년 이후 50%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60.3%로 증가함.
- 상용직 중 파견근로 비중은 2009년 이후 1%대로 올라섰고, 용역근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3.4%를 차지함.
- 상용직 중 특수형태근로 비중은 2004년 1.7%에서 2015년 0.1%로 감소함.
- 일용직 중 일일근로 비중은 2004년 32.1%였으나 2015년에는 57.2%로 증가함.
- 일용직 중 시간제 근로 비중도 2004년 28.9%였으나 2015년에는 38.5%로 증가하였음. 임시직 중 시간제 근로 비중도 2004년 9.4%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27.8%까지 증가함.
- 상용직 중 시간제 근로 비중도 같은 기간에 0.2%에서 1.8%로 증가하였으나 상용직 중에는 정규직이 워낙 많아 시간제 근로의 비중 자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5> 근로형태별 ·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정규직	상용	14.5	20.9	19.1	19.5	20.9	17.7	17.3	18.5	19.2	18.7	17.9	17.4	17.2
	임시	36.4	40.9	42.5	41.7	41.8	43.5	49.9	45.5	48.5	48.8	51.0	51.6	53.1
	일용	87.3	87.5	87.6	84.3	84.9	82.5	82.5	83.1	84.5	88.1	87.9	87.9	90.2
한시적 근로	상용	12.5	18.1	17.0	18.0	19.0	16.0	15.7	17.0	17.3	16.6	15.5	15.1	15.0
	임시	22.0	25.8	26.1	24.7	24.2	25.5	31.1	24.7	26.2	25.8	27.1	27.3	28.8
	일용	50.9	46.4	46.1	43.3	31.8	28.1	22.5	16.6	15.1	16.7	17.9	18.1	17.7
기간제	상용	10.5	12.9	14.9	14.2	14.5	13.2	14.4	14.6	14.7	14.4	13.6	12.7	12.9
	임시	14.4	14.2	14.9	15.0	14.9	15.4	23.4	16.7	18.4	18.3	19.8	19.8	20.2
	일용	46.4	39.2	38.1	38.4	24.7	19.7	13.5	9.0	9.5	12.0	12.2	12.5	12.3
비전형 근로	상용	3.4	4.8	3.6	3.5	4.5	4.1	4.8	5.2	5.3	5.2	4.9	4.4	4.4
	임시	13.6	14.9	15.3	15.7	16.0	16.7	16.5	15.3	16.2	15.5	15.5	14.3	14.1
	일용	37.5	41.4	40.3	41.0	48.7	46.3	52.0	54.9	59.1	58.6	57.4	56.7	60.3
파견	상용	0.6	0.8	0.7	0.7	1.0	0.8	1.0	1.4	1.2	1.2	1.2	1.0	0.9
	임시	0.8	0.8	1.0	1.0	1.1	1.1	1.1	1.2	1.2	1.5	1.1	1.2	1.4
	일용	0.6	0.9	0.7	0.9	1.4	0.8	0.5	0.5	0.4	0.5	0.9	0.8	1.2
용역	상용	1.5	2.1	2.0	2.5	3.1	3.1	3.6	3.7	3.8	3.9	3.6	3.2	3.4
	임시	3.8	3.8	4.1	4.1	4.5	5.2	4.2	3.6	4.0	3.7	3.5	3.1	3.0
	일용	2.8	3.3	3.3	4.0	4.5	5.0	3.4	2.5	3.3	3.5	3.0	3.3	4.7
특수형태근로	상용	1.3	1.7	0.9	0.2	0.3	0.2	0.1	0.1	0.2	0.1	0.0	0.1	0.1
	임시	8.3	9.8	9.5	9.5	10.0	10.3	10.7	10.4	10.9	9.9	10.5	9.7	9.2
	일용	5.1	5.2	4.4	5.8	5.1	3.0	4.1	2.7	2.9	2.7	2.0	1.1	1.1
가정 내 근로	상용	0.1	0.3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임시	1.0	0.6	0.9	1.4	0.6	0.2	0.5	0.1	0.2	0.4	0.5	0.3	0.5
	일용	5.3	5.8	4.3	4.9	4.4	2.7	3.5	3.4	3.3	2.9	2.7	2.8	1.6
일일근로	상용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임시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용	28.9	32.1	33.0	31.9	40.6	40.4	46.7	49.0	54.4	54.6	53.5	53.4	57.2
시간제 근로	상용	0.1	0.2	0.2	0.2	0.2	0.2	0.5	0.8	1.2	1.3	1.5	1.6	1.8
	임시	8.0	9.4	8.8	10.6	11.5	11.6	14.7	18.4	19.6	22.2	23.9	25.5	27.8
	일용	25.8	28.9	27.6	28.0	29.0	31.0	33.1	33.5	32.9	37.0	35.6	35.7	38.5

주 : 각 종사상지위 내 임금근로자 중 개별 근로형태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IV.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1. 임금

-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정규직=100) 수준은 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표 IV-1 참조).
 -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조사가 시작된 2002~2007년까지 60대 수준이었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용부진을 경험했던 2009년 54.6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됨. 그 이후 2011~2014년까지 줄곧 56대 수준을 유지함.
 - 최근 2013년부터 격차가 차츰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비

<표 IV-1> 근로형태별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7.1	61.3	65.0	62.7	62.8	63.5	60.9	54.6	54.8	56.4	56.6	56.1	55.8	54.4
한시적 근로	71.3	65.1	69.5	67.2	68.8	71.7	68.5	59.1	61.0	62.9	63.7	62.9	62.0	60.4
기간제	72.5	64.5	67.0	68.2	67.7	70.6	70.0	59.6	59.3	61.3	62.8	62.1	60.8	60.3
반복갱신	79.9	88.1	96.2	91.7	93.0	97.0	87.1	87.7	98.6	92.2	87.3	94.8	85.6	78.1
기대불가	54.3	53.4	51.9	50.1	49.8	47.0	49.5	47.2	46.2	50.1	52.7	48.5	49.4	49.6
비전형 근로	67.0	58.2	60.3	58.5	54.8	55.4	56.3	54.1	54.4	55.3	56.2	55.5	58.2	55.8
파견	78.9	65.8	71.8	71.3	66.1	66.8	69.3	64.3	61.5	63.8	65.8	58.9	58.6	59.0
용역	59.2	51.9	52.1	51.4	48.9	51.0	50.9	50.5	51.2	51.3	51.4	53.2	53.1	53.9
특수형태근로	82.3	75.8	78.5	77.1	69.3	70.8	73.0	69.5	71.0	75.0	73.7	70.7	79.6	73.2
가정 내 근로	36.4	24.6	31.8	30.7	31.3	28.3	22.9	27.3	19.0	21.8	27.0	23.9	23.2	30.8
일일근로	54.2	48.0	47.2	46.6	45.7	44.4	46.2	43.3	45.3	44.2	46.8	47.6	48.9	47.9
시간제 근로	34.3	29.8	30.4	28.3	28.9	27.9	27.0	24.3	24.6	25.3	24.7	25.7	25.4	26.2

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 수준은 2000년 이후 경험했던 두 번의 큰 경기변동(2003년 신용카드사태, 2009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54.4로 나타났으며, 조사 이래 정규직과의 상대임금격차가 가장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2002년 67.1에서 신용카드사태가 있었던 2003년 61.3으로 떨어졌고, 내수침체가 있었던 2008년 다시 60.9로 하락한 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또다시 54.6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아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2015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을 보면, 반복갱신(78.1)>특수형태근로(73.2)>기간제(60.3)>과견(59.0)>용역(53.9)>기대불가(49.6)>일일근로(47.9)>가정 내 근로(30.8)>시간제 근로(26.2)의 순으로 상대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정규직=100)을 보면, 기간제 상대임금 수준은 2002년(72.5) 정점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59.6, 2010년 59.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이후 2012년 62.8까지 격차가 소폭 완화되었으나 2013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5년에는 60.3으로 나타남.
 - 반복갱신근로는 2002년을 제외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그리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5년에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78.1까지 확대됨.
 - 과견근로는 2002년 78.9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 61.5로 하락함. 2012년 65.8로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2013년 58.9로 크게 하락한 이후 2015년에도 격차가 소폭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59.0으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용역근로의 상대임금 수준은 2002년 59.2가 정점이었고, 2006년 48.9로 가장 낮았는데,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50~51 수준을 유지하다 2013년부터 53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던 추세임. 2015년에는 53.9 수준까지 격차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침.

- 특수형태근로자는 2002년(82.3) 정점에서 꾸준히 하락해 2006년 69.3, 2009년 69.5로 낮은 수치를 보인 이후 상승하여 2011년 75.0까지 상승한 이후 2012년(73.7), 2013년(70.7) 연속으로 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79.6까지 상승함. 그러나 2015년에는 73.2로 나타나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임.
 -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모두 2002년이 정점이었는데, 가정 내 근로는 2010년(19.0)이 가장 낮았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정규직과의 상대임금이 2015년 30.8로 나타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근로는 2002년(34.3) 이후 꾸준히 상대임금 수준이 하락해 왔으며, 2009년 이후 24~25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15년에는 26.2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됨.
-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1년부터 65 내외 수준에서 답보상태임(표 IV-2 참조).
- 2015년 65.0으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됨.
 - 국제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이어졌던 2008~09년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 수준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2011년부터 64~65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2015년에는 정규직 대비 시간당 상대임금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2008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시간제 근로, 파견, 용역, 기대불가, 가정 내 근로 등은 2014년에 비해 상대임금 수준이 다소 개선됨.
 - 반면 반복갱신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은 78.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반복갱신 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은 다른 비정규직보다 높으나 2015년에는 2014년에 이어 큰 폭의 하락을 보임. 이와 더불어 특수형태근로, 기간제, 일일근로의 상대임금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2> 근로형태별 상대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0.5	71.6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64.8	64.3	65.0
한시적 근로	83.0	70.4	75.9	72.4	74.3	76.1	72.7	64.1	66.2	69.3	69.0	69.1	67.7	66.9
기간제	86.9	70.7	75.6	74.5	74.6	76.3	75.1	65.5	65.8	69.0	69.4	69.2	67.8	67.9
반복갱신	82.1	88.4	96.3	89.1	94.0	98.1	88.4	87.2	100.8	93.7	86.5	96.0	85.8	79.3
기대불가	59.3	55.8	54.7	54.1	51.3	48.0	51.6	48.7	46.4	52.4	54.2	50.9	51.6	53.3
비전형 근로	72.6	66.3	66.0	63.2	60.1	60.1	59.4	57.0	57.4	58.5	58.7	58.3	60.8	60.3
파견	78.7	68.0	78.0	76.1	66.3	70.8	71.3	69.7	64.5	66.5	73.4	62.8	60.8	65.9
용역	56.5	49.4	50.0	48.4	46.1	48.4	49.1	47.9	50.3	49.8	48.9	52.0	51.8	53.0
특수형태근로	89.5	82.9	86.1	83.2	81.4	79.9	79.7	75.4	77.1	82.4	78.4	76.1	84.0	79.1
가정 내 근로	50.2	36.4	43.1	47.8	42.9	34.9	36.4	37.1	31.3	34.9	41.6	33.3	27.8	43.1
일일근로	62.5	63.2	55.2	53.7	51.5	52.0	51.2	47.6	49.0	47.4	50.1	51.5	54.4	54.5
시간제 근로	101.1	85.1	80.2	76.7	73.1	66.6	64.7	56.2	55.5	59.3	53.3	55.5	54.0	57.8

주: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 근로시간 * 365/12 * 7).

2)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 근로시간

- 다음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2015년 정규직의 평균 근로시간은 소폭 늘어남.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음.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용역근로만 평균 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길고 나머지 근로형태는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정규직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표 IV-3 참조).
 - 정의상 근로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시간제 근로를 제외할 경우 가정 내 근로의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음.

<표 IV-3>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49.3	48.5	47.8	47.5	46.6	45.9	45.1	43.9	43.4	42.7	42.0	41.7	41.5	41.4
정규직	51.0	50.2	49.7	49.2	48.5	47.9	46.9	45.9	45.6	45.0	44.2	44.0	43.8	44.0
비정규직	44.9	45.0	44.7	44.5	43.1	42.5	41.7	40.1	39.1	38.4	37.7	37.1	36.7	35.9
한시적 근로	46.5	46.8	46.4	46.5	45.2	44.9	44.3	42.3	41.5	40.7	40.2	39.5	39.0	38.7
기간제	45.7	46.2	45.1	45.6	44.3	44.1	43.8	41.5	40.7	39.8	39.3	38.7	38.1	37.9
반복갱신	47.0	49.3	49.6	50.9	47.8	47.1	45.2	45.3	43.2	43.5	44.2	43.2	42.8	42.6
기대불가	44.3	49.3	49.1	48.4	48.2	46.6	45.8	45.4	44.5	43.8	43.4	42.2	41.8	40.7
비전형 근로	47.6	46.6	45.8	45.9	44.7	44.1	44.1	42.7	42.6	41.9	41.7	41.1	41.0	39.8
파견	50.9	49.1	48.0	48.2	47.6	46.0	44.2	41.3	43.6	42.8	39.1	39.3	40.7	37.5
용역	54.3	54.1	52.9	52.2	51.9	51.0	49.6	49.0	47.2	46.6	47.0	45.5	45.2	44.7
특수형태근로	46.7	45.2	44.8	44.6	41.0	41.3	41.6	40.8	40.8	39.4	39.8	39.9	40.6	39.5
가정 내 근로	39.4	39.2	37.1	37.4	38.0	35.8	30.5	32.9	33.4	31.9	33.2	32.1	36.0	32.1
일일근로	45.8	43.9	42.8	43.0	42.0	40.9	41.7	39.9	40.7	40.4	39.7	39.1	38.4	37.1
시간제 근로	21.6	23.0	22.6	22.2	21.5	21.7	21.5	21.3	21.1	20.7	21.0	21.2	21.0	20.7

주: 평균 근로시간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3. 근속기간

○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003년 68.3개월에서 2015년 87.3개월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2009년까지 24개월 안팎에서 변동하다가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2015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짧아짐(표 IV-4 참조).

- 2015년 8월 현재 특수형태근로 > 반복갱신 > 가정 내 근로 > 용역 > 파견 > 기간제 > 기대불가, 시간제 근로 > 일일근로 순으로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반복갱신, 특수형태근로의 근속기간은 전년대비 줄어든 폭이 큼.
- 일일근로는 특성상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함.

<표 IV-4>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단위: 개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52.7	52.9	54.3	54.1	55.2	57.1	58.6	59.4	61.2	64.0	66.8	67.3	68.0
정규직	68.3	69.8	71.8	70.1	71.3	73.9	78.7	77.3	79.2	82.2	84.8	85.3	87.3
비정규직	20.5	24.1	23.9	25.1	26.3	24.3	21.2	23.6	26.5	27.7	29.6	29.6	27.8
한시적 근로	21.7	25.9	25.8	28.4	31.5	28.9	23.2	26.9	30.7	31.4	32.7	31.4	29.2
기간제	19.1	22.6	25.0	25.0	29.2	28.1	23.2	25.6	28.7	29.9	31.0	29.1	28.6
반복갱신	54.2	50.5	56.4	61.4	57.2	52.5	46.7	59.7	62.1	57.9	67.9	62.3	50.5
기대불가	16.2	14.7	13.6	13.9	13.5	16.1	15.6	12.8	18.0	22.2	21.8	19.8	18.9
비전형 근로	18.7	21.9	21.6	20.0	20.3	20.8	20.7	23.3	24.3	26.3	29.2	30.8	28.7
파견	24.9	26.7	28.5	24.0	25.1	29.0	25.5	30.0	35.1	33.0	34.2	30.5	30.8
용역	23.8	22.8	24.7	23.6	25.7	23.9	25.3	30.3	29.1	30.9	34.3	34.5	32.9
특수형태근로	31.0	37.1	38.5	32.9	35.2	39.8	39.7	45.1	49.2	54.2	60.7	69.0	64.6
가정 내 근로	11.5	16.5	13.6	14.0	15.9	10.5	12.2	14.2	11.2	16.4	23.5	26.0	39.7
일일근로	1.6	2.1	2.3	2.8	2.3	2.1	1.7	1.4	1.7	2.0	1.4	1.0	1.5
시간제 근로	10.4	11.5	10.7	12.3	11.4	11.8	12.0	13.4	15.9	17.2	18.8	18.2	1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IV-5> 근로형태별 근속기간 분포(2015년 8월 기준)

(단위 : %)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 체
임금근로자	23.2	9.4	12.8	19.2	15.2	20.3	100.0
정규직	12.6	8.2	12.5	21.0	18.2	27.4	100.0
비정규직	45.0	11.9	13.3	15.4	8.8	5.6	100.0
한시적 근로	37.7	14.0	15.5	18.2	9.4	5.1	100.0
기간제	37.8	14.1	15.8	18.2	9.3	4.8	100.0
반복갱신	23.1	9.1	17.2	23.3	14.4	12.8	100.0
기대불가	46.8	16.7	12.4	14.8	7.2	2.1	100.0
비전형 근로	51.9	8.0	10.7	13.3	9.3	6.9	100.0
파견	36.5	10.4	15.5	21.3	11.0	5.3	100.0
용역	29.0	13.0	18.9	21.4	11.7	6.1	100.0
특수형태근로	17.5	10.3	13.6	20.3	19.9	18.4	100.0
가정 내 근로	45.2	10.8	12.2	11.3	9.1	11.3	100.0
일일근로	96.9	1.5	0.7	0.2	0.2	0.5	100.0
시간제 근로	56.3	12.8	11.6	10.4	5.7	3.2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V. 비정규직의 복지

1. 사회보험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은 2014년에 비해 저조함.
 -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가입률이 2007년 40.0%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39%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36.9%로 하락함. 세부 근로형태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음 (표 V-1, V-2, V-3 참조).

<표 V-1>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52.7	57.7	59.5	61.4	62.6	63.2	64.3	64.7	65.0	65.1	66.5	67.6	67.9	67.4
정규직	62.9	70.8	72.5	75.7	76.1	76.3	77.3	78.9	78.4	79.1	80.3	81.2	82.1	82.0
비정규직	25.7	30.5	37.5	36.6	38.2	40.0	39.0	38.2	38.1	38.2	39.0	39.2	38.4	36.9
한시적 근로	31.3	39.1	47.8	47.5	51.4	57.2	56.4	56.5	58.6	58.2	58.6	57.8	56.0	54.4
기간제	32.1	39.9	48.3	52.5	51.7	59.3	62.6	62.6	63.8	62.1	62.3	61.1	58.5	58.2
반복갱신	59.7	68.9	76.2	63.3	82.6	83.5	78.6	83.7	86.0	82.1	80.2	83.0	76.5	73.8
기대불가	6.7	13.4	13.8	16.2	16.6	13.5	14.2	14.7	14.2	15.8	18.0	19.6	21.3	18.8
비전형 근로	24.4	22.4	25.7	23.6	22.0	23.0	23.6	21.7	22.3	21.1	23.0	23.4	21.8	21.0
파견	53.5	52.3	62.8	60.0	66.6	66.2	70.5	73.2	67.1	67.1	64.0	63.8	69.1	63.0
용역	49.8	55.2	53.7	54.9	53.7	55.5	56.3	58.1	59.0	52.6	53.4	53.6	50.7	47.5
특수형태근로	24.2	22.1	26.1	21.2	10.0	9.1	6.9	0.5	0.4	3.4	3.8	4.5	2.8	1.9
가정 내 근로	12.0	4.9	13.8	1.4	2.1	1.4	1.7	8.3	7.7	7.6	5.8	17.5	9.2	14.3
일일근로	0.0	0.1	0.5	1.1	0.7	0.4	0.9	0.2	0.3	0.2	0.2	0.6	0.1	0.2
시간제 근로	2.0	2.1	2.4	2.1	3.2	3.3	6.4	7.4	9.3	11.0	12.2	13.4	14.6	13.3

주: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구분할 수 있는 해의 경우 직장가입만 대상으로 함. 2008년부터는 직장가입 구분이 가능함. 2007년까지는 가입·미가입으로만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 지침서상으로는 2007년까지도 직장가입지만 가입했다로 응답하도록 가이드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V-2>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48.0	49.8	52.1	53.1	54.6	55.3	56.8	58.9	58.6	59.6	61.2	62.4	63.8	63.7
정규직	56.2	59.7	61.5	63.8	64.7	64.3	65.8	67.6	67.6	68.9	70.4	71.8	73.5	74.0
비정규직	26.2	29.2	36.1	34.5	36.3	39.2	39.2	42.7	40.4	41.6	42.7	43.0	43.4	42.0
한시적 근로	31.8	37.1	45.5	45.2	49.0	55.5	56.0	62.0	60.6	61.1	62.0	61.8	61.9	59.3
기간제	32.7	37.6	45.8	50.0	49.7	57.6	62.3	68.7	66.4	65.1	65.8	65.3	64.9	63.3
반복갱신	58.9	65.1	72.8	59.7	77.2	81.2	77.3	85.3	82.1	80.7	79.6	82.7	78.9	74.8
기대불가	9.1	14.5	14.0	15.1	15.5	12.7	14.4	18.1	17.0	21.5	23.7	25.0	26.7	25.7
비전형 근로	24.8	21.9	25.2	22.0	20.8	23.9	25.8	27.6	28.6	28.0	29.9	29.7	29.2	29.0
파견	55.2	52.6	63.7	59.6	65.1	67.9	72.3	77.1	71.7	72.8	70.2	70.7	77.9	67.9
용역	51.5	52.5	52.8	55.0	52.5	59.6	60.9	70.3	74.2	67.0	68.0	68.0	66.6	64.6
특수형태근로	24.3	20.8	24.1	16.8	7.7	7.9	7.5	2.3	2.0	4.5	5.8	5.6	3.6	4.2
가정 내 근로	11.0	4.9	13.8	1.4	1.4	1.4	1.7	7.7	8.8	8.8	5.7	17.1	9.2	17.9
일일근로	0.5	1.7	1.6	0.9	0.7	0.7	2.7	5.1	4.0	5.9	4.4	4.0	5.3	5.8
시간제 근로	3.1	3.0	3.6	2.2	3.2	3.7	6.3	9.1	10.6	13.4	14.8	17.2	19.5	18.8

주 : 2010년 이후 통계는 공식발표 통계와 상이한데, 이는 2010년부터 통계청이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여전히 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 근로형태별로 편차가 있음.
 - 한시적 근로는 기간제와 반복갱신 집단의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로 인해 정규직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다가 2010년 이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국민연금은 2012년 이후, 고용보험은 2013년 이후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음.
 -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은 2006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일정한 추세보다는 등락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2015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함.

<표 V-3> 근로형태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55.5	59.5	61.3	61.9	63.2	64.4	65.6	67.1	67.0	68.3	69.9	71.3	71.4	71.5
정규직	65.6	72.5	73.8	75.9	76.1	76.7	78.0	79.8	79.5	80.9	82.2	83.5	84.1	84.8
비정규직	28.8	32.6	40.1	37.7	40.0	42.5	41.5	43.4	42.1	44.1	45.4	46.2	44.7	43.8
한시적 근로	34.6	41.1	50.5	48.7	53.2	60.0	59.8	64.1	64.6	66.9	67.7	67.4	65.3	64.1
기간제	35.3	41.8	50.9	54.0	53.8	62.7	66.5	71.4	71.1	72.1	72.4	72.0	69.3	69.4
반복갱신	64.4	72.5	79.0	63.4	84.0	84.6	79.6	85.5	86.5	83.9	83.7	85.2	80.9	79.5
기대불가	8.3	15.6	17.4	16.6	16.8	15.8	17.2	17.4	17.4	21.5	24.1	24.7	25.1	22.1
비전형 근로	28.4	26.4	29.7	25.8	25.4	27.7	28.2	27.7	28.8	29.6	32.5	32.8	31.2	31.1
파견	54.4	55.1	66.0	61.1	66.3	67.4	71.9	75.7	72.0	74.8	70.0	73.7	77.2	67.3
용역	64.2	69.7	68.5	65.8	67.4	73.0	71.6	78.2	81.3	80.1	81.8	82.0	81.0	79.9
특수형태근로	26.8	24.4	28.0	20.8	9.7	8.7	6.4	1.2	0.6	4.1	5.6	5.0	2.8	1.7
가정 내 근로	13.5	5.1	14.9	0.6	1.4	1.4	0.9	8.8	7.0	7.6	5.8	18.5	9.2	17.4
일일근로	0.0	0.2	0.3	0.8	1.0	0.8	0.9	0.4	0.4	0.3	0.2	0.6	0.3	0.2
시간제 근로	2.7	2.7	3.7	2.3	3.8	4.0	6.1	8.8	10.6	13.0	14.6	17.9	17.8	17.5

주: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구분할 수 있는 해의 경우 직장가입만 대상으로 함. 2008년부터 직장가입 구분이 가능함. 2007년까지는 가입·미가입으로만 구분되었으나 부가조사 지침서상으로는 2007년까지도 직장가입자만 가입했다로 응답하도록 가이드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비전형 근로의 경우 파견, 용역은 정규직과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가 크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의 경우 매우 큰 격차를 보임.
- 특히 파견의 경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가입률이 70% 미만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하락폭이 큼.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가입률이 2005년 이후 급감하는 특이한 추이가 있음.
-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2.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복지제도와 상여금

- 다음으로 사회보험 외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이용가능한 근로 복지 항목인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수혜 여부에 대해 근로형태 간 차이를 분석하였음.
 - 퇴직금은 2010년 12월 이전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됨. 유급휴가와 시간외수당은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에만 적용되며,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법정임금은 아님.
- 비정규직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2002년 20.6%에서 2015년 40.5%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섬(표 V-4 참조).

<표 V-4> 근로형태별 퇴직금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48.7	52.9	54.0	54.1	54.6	57.5	61.4	61.5	63.1	64.7	66.7	68.2	68.3	69.9
정규직	59.3	66.4	67.4	68.6	67.9	70.3	74.5	76.9	76.6	78.4	80.2	81.8	82.0	84.0
비정규직	20.6	24.8	31.3	28.8	30.3	34.8	35.6	32.7	35.9	38.4	39.6	39.9	39.5	40.5
한시적 근로	25.2	31.9	40.1	38.3	41.7	50.1	51.7	47.9	55.2	59.0	59.5	58.8	58.2	59.4
기간제	26.7	33.1	41.2	43.8	43.0	52.9	57.9	53.3	60.7	63.0	63.5	63.3	61.5	63.7
반복갱신	51.2	61.2	70.7	58.4	70.5	75.7	76.4	80.7	82.9	84.5	80.2	81.1	78.5	79.6
기대불가	4.1	4.2	1.1	2.1	3.1	3.9	8.1	8.3	9.3	14.4	17.4	15.0	18.0	20.2
비전형 근로	19.9	17.7	21.4	16.8	16.2	20.6	24.3	24.2	26.1	26.8	29.7	29.9	28.9	30.7
파견	52.8	46.8	54.5	51.1	50.9	58.6	66.1	64.3	66.7	71.6	67.9	70.4	72.0	64.6
용역	39.7	42.4	47.9	44.3	47.2	55.4	60.5	69.7	73.8	73.5	75.9	77.1	74.6	78.2
특수형태근로	19.3	17.0	19.2	10.8	1.6	3.4	6.4	0.7	0.5	1.5	2.0	2.0	2.8	3.1
가정 내 근로	9.4	4.2	12.6	1.0	1.0	0.4	1.7	7.0	4.3	7.6	5.1	12.3	5.4	13.7
일일근로	0.0	0.1	0.2	0.1	0.1	0.3	0.4	0.3	0.2	0.1	0.6	0.2	0.4	0.8
시간제 근로	1.5	1.8	2.0	1.8	1.6	1.9	3.7	5.5	6.6	9.5	10.1	12.3	13.1	14.3

주 : 근로형태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퇴직금 수혜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수혜율 격차는 더욱 커져, 2002년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38.7%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43.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사회보험 추이와 유사하게 한시적 근로 중 기간제 및 반복갱신근로, 비전형 근로 중 파견 및 용역근로의 경우 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혀 왔으나 2011년 이후 정규직과의 격차가 다소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15년 파견의 경우 퇴직금 수혜율의 하락폭이 큼.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200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특이한 추이를 보임. 201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 시간제 근로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1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0.0%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70% 벽을 넘어서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증가추세를 보임.
- 정규직 응답자의 비중은 2002년 59.6%에서 2015년 85.0%로 25.4%포인트 상승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비정규직 또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3년 40.2%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음(표 V-5 참조).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근로는 정규직과 격차가 그리 크지 않지만 2010년 이후 격차가 다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파견근로의 경우 2002년 43.5%에서 2010년 67.9%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53.1%로 하락함. 용역근로는 같은 기간에 33.8%에서 61.6%로 상승해 정규직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파견·용역 근로 모두 2010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답보 상태임. 특히 2015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폭이 큼.

<표 V-5> 근로형태별 상여금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48.5	51.3	51.6	52.1	53.3	55.9	56.6	61.0	64.7	65.0	66.6	69.5	69.3	70.0
정규직	59.6	65.5	65.8	67.4	67.5	69.8	71.2	77.7	79.3	80.4	81.8	83.6	83.5	85.0
비정규직	19.0	21.9	27.5	25.5	27.7	31.1	27.9	29.8	35.5	35.5	36.4	40.2	39.7	39.0
한시적 근로	22.4	28.1	35.2	34.2	38.4	44.8	41.1	42.4	52.3	51.8	51.7	54.9	53.8	52.0
기간제	23.4	28.8	35.0	38.9	38.5	46.0	45.3	46.8	56.1	53.6	53.5	57.1	55.0	54.1
반복갱신	45.1	58.2	66.5	54.3	69.2	72.4	66.7	74.8	81.3	77.6	76.4	78.7	75.0	72.4
기대불가	2.6	3.1	1.2	1.7	5.3	5.0	5.6	8.4	13.9	20.8	21.0	25.8	27.8	26.2
비전형 근로	18.6	14.9	17.8	13.4	12.6	15.6	14.9	20.0	24.4	23.7	26.4	29.6	29.4	28.3
파견	43.5	41.9	46.0	48.3	40.6	48.3	48.4	57.2	67.9	60.6	61.0	64.9	65.1	53.1
용역	33.8	32.1	35.9	30.4	34.1	38.0	36.1	52.2	61.8	57.0	57.6	63.2	61.6	57.5
특수형태근로	20.0	16.0	18.0	10.5	2.3	4.6	3.6	3.6	4.3	7.9	10.9	14.8	16.9	18.6
가정 내 근로	9.4	3.9	10.9	1.5	1.7	0.4	0.8	8.5	4.7	7.6	6.4	8.5	2.3	15.9
일일근로	0.1	0.2	0.0	0.1	0.5	0.8	0.0	0.7	1.6	1.8	2.0	3.7	4.5	4.3
시간제 근로	1.7	1.3	1.8	1.8	2.0	3.1	3.6	8.8	11.2	12.4	12.7	17.3	16.5	17.4

주 : 근로형태별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기간제도 2002년 23.4%에서 2015년 54.1%로 상승함. 그러나 2010년 이후 정규직과의 격차가 소폭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0.8%포인트 확대됨.
 - 특수형태근로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006년 급격히 줄었으나 2012년 10%로 진입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임. 2015년에는 18.6%로 전년대비 1.7%포인트 증가함.
 - 시간제 근로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2015년 기준 17.4%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급휴가의 수혜율은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증가 추세이지만 정규직과의 격차가 40%포인트를 넘고 있음(표 V-6 참조).

<표 V-6> 근로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45.8	45.0	43.7	49.8	52.8	57.0	58.7	56.0	58.0	60.0	60.2	60.3
정규직	58.2	58.0	55.0	61.7	65.4	70.6	71.3	69.2	71.0	73.0	73.7	73.9
비정규직	24.6	22.7	23.1	28.7	28.0	31.7	33.6	30.5	32.1	33.0	32.0	31.9
한시적 근로	31.8	30.7	31.9	41.9	41.5	47.8	52.7	47.7	49.3	49.7	47.7	47.5
기간제	31.4	34.5	32.8	44.7	46.1	54.6	58.9	52.2	53.2	53.8	51.1	52.0
반복갱신	57.6	49.5	51.7	61.2	65.6	67.2	75.8	63.0	65.3	68.5	63.7	59.3
기대불가	5.1	2.8	4.8	3.2	5.4	4.5	6.2	7.7	11.4	10.2	10.1	12.4
비전형 근로	14.3	11.0	10.8	14.2	15.5	17.6	21.7	17.9	19.9	21.3	20.8	20.2
파견	43.4	40.2	38.9	45.3	50.0	58.6	67.2	55.3	54.2	58.6	58.9	51.2
용역	25.4	25.0	28.8	35.6	37.5	47.7	56.8	45.8	47.8	51.7	51.0	47.6
특수형태근로	15.0	8.6	2.1	3.5	4.0	0.3	0.8	1.7	1.8	1.9	3.1	3.3
가정 내 근로	11.2	1.0	0.4	0.4	1.7	5.5	2.3	5.6	2.6	6.7	2.8	11.2
일일근로	0.1	0.1	0.0	0.1	0.0	0.2	0.3	0.3	0.0	0.4	0.0	0.5
시간제 근로	1.6	1.4	2.1	2.3	2.4	4.3	6.0	5.3	6.8	9.1	8.2	9.3

주: 1) 근로형태별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2) 2004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했다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2015년에는 반복갱신, 파견근로, 용역근로만이 전년대비 유급휴가 수혜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금이나 상여금과는 달리 정규직에서 2004년 이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보임(표 V-7 참조).
- 2015년 기준 정규직의 58.4%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23.7%만 그렇다고 응답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기간제, 파견, 용역근로는 비교적 정규직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5년에는 비정규직 근

로형태 대부분이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시간제 근로의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증가하고는 있으나 단지 9.4%만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함.

- 특수형태근로에서는 2006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음.

<표 V-7> 근로형태별 시간외수당 수혜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39.3	40.2	43.4	43.6	42.4	43.3	42.4	43.3	44.4	43.7	45.2	47.5	47.6	47.2
정규직	48.4	52.1	55.8	56.6	53.9	54.2	53.5	55.5	55.4	55.0	56.2	58.4	58.8	58.4
비정규직	15.0	15.4	22.2	21.1	21.5	23.8	20.7	20.4	22.5	22.0	23.2	24.9	24.3	23.7
한시적 근로	18.4	19.7	28.3	27.8	29.6	34.3	30.2	28.4	33.0	32.2	33.8	35.3	34.5	33.1
기간제	18.9	20.0	27.7	31.0	29.4	35.1	33.6	31.5	35.0	33.3	35.4	37.3	36.2	35.5
반복갱신	33.4	42.1	54.2	45.8	53.7	55.9	47.2	51.1	57.9	50.1	48.2	52.2	47.0	44.6
기대불가	3.8	2.8	2.7	3.7	5.4	3.9	3.6	4.2	7.0	11.0	12.6	11.4	12.2	11.7
비전형 근로	13.4	9.7	14.0	11.3	9.6	12.3	11.2	13.3	14.4	13.5	14.5	15.6	15.2	14.7
파견	29.4	35.0	34.6	37.2	35.9	42.2	43.1	45.0	44.8	35.9	40.1	44.1	45.7	35.0
용역	22.5	19.6	26.6	27.9	25.5	30.2	24.8	32.0	34.3	31.8	31.3	33.8	32.6	32.2
특수형태근로	14.4	9.0	13.9	7.1	0.9	1.7	1.5	0.1	0.0	0.4	0.5	0.1	1.1	0.2
가정 내 근로	8.2	2.8	9.0	0.9	1.0	0.0	0.8	3.4	1.7	4.3	2.8	0.5	1.0	7.5
일일근로	1.3	0.8	2.1	1.7	1.1	1.3	1.5	3.1	3.2	4.1	3.8	5.3	4.0	4.4
시간제 근로	3.1	2.2	1.8	2.5	2.4	2.3	2.2	4.9	5.7	6.4	6.7	8.8	9.0	9.4

주 : 근로형태별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결론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전체와 정규직 간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복지적용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근로형태에 따라 정규직과의 격차가 차이를 보임.
 -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 가장 정규직과 유사하며, 기간제 근로 집단은 복지혜택 적용률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비전형 근로 중에서는 파견, 용역근로의 경우 가입률과 적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5년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대비 하락함.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가입률과 적용률이 감소하였으며(상여금 수혜율은 2012년부터 10%대를 회복한 이후 상승세임), 일일근로의 경우 관련 규제가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시간제 근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가운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 복지 수혜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3. 근로계약서와 직업훈련

-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비중을 보면, 기간을 명시할 가능성이 높은 기간제, 반복갱신, 파견, 용역에서 계약서 작성비중이 높았고, 이들 집단에서는 비중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왔음(표 V-8 참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함.
 - 근로계약서 작성비중은 조사 이래 2008년을 제외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낮음. 그러나 2015년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높고, 그 비중 또한 60%대 진입이 처음임.
 - 비정규직 근로형태 중에서도 기간제, 반복갱신, 파견, 용역 근로의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일근로는 작성비중이 매우 미미했고, 시간제 근로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5년 기준 44.3%만 작성함.
- 직업훈련 경험은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정규직과의 격차가 다소 확대되고 있음(2015년 15.2%포인트, (표 V-9 참조)).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와 반복갱신은 2015년 기준 각각

56.4%, 52.6%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표 V-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15.6	37.2	38.5	41.4	42.8	46.5	48.6	48.2	50.6	53.6	55.4	56.7	59.3
정규직	10.8	35.8	38.3	40.6	41.5	46.8	47.6	47.1	49.8	53.5	55.2	56.0	60.0
비정규직	25.7	39.5	38.8	42.8	45.1	46.1	50.3	50.3	52.0	53.7	55.9	58.1	57.8
한시적 근로	36.9	49.2	49.3	54.2	60.6	61.8	69.6	72.7	74.0	75.9	76.0	77.0	76.3
기간제	44.2	53.4	57.1	57.3	66.0	71.1	79.4	83.1	82.3	83.2	83.6	84.6	84.0
반복갱신	16.2	66.2	44.9	72.2	72.3	70.6	79.1	77.7	79.2	77.6	81.1	75.4	79.0
기대불가	3.0	10.4	15.1	15.9	16.9	15.8	13.8	15.9	19.1	25.0	21.8	26.9	27.9
비전형 근로	15.1	31.5	28.2	32.8	34.5	37.7	38.0	39.8	39.8	43.0	44.7	47.5	46.5
파견	30.4	59.3	55.8	66.9	66.2	75.5	79.0	83.0	77.5	76.9	81.9	84.4	81.3
용역	41.8	59.3	60.4	64.1	70.3	70.1	76.1	80.6	80.8	81.7	82.9	85.9	82.0
특수형태근로	12.7	37.7	30.9	32.5	32.7	39.2	35.3	38.4	38.2	43.2	45.9	50.3	52.1
가정 내 근로	2.8	10.0	7.0	5.4	4.6	5.8	7.5	8.3	12.8	7.0	11.4	10.9	17.9
일일근로	0.4	3.7	3.0	4.4	4.0	4.2	4.5	2.2	3.4	3.6	4.4	8.1	7.4
시간제 근로	6.8	14.3	14.5	16.5	17.2	19.3	23.7	26.7	31.7	33.0	38.6	42.3	44.3

주 : 2003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파견근로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해도 있었으며 2014년부터는 60%를 넘어서며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특수형태근로는 일관되게 전 시기에 걸쳐 정규직보다 직업훈련 경험이 더 많았음.
- 용역근로는 약 10~17%포인트 정도 정규직보다 훈련경험이 낮았으며, 기대불가,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의 직업훈련 경험을 보임. 시간제 근로 또한 낮은 수준이지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2015년은 전년과 동일).

<표 V-9> 근로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28.0	24.9	26.8	30.8	31.2	35.5	37.2	46.9	52.5	53.2
정규직	31.2	28.4	30.4	34.7	34.6	39.5	41.4	51.5	57.0	58.1
비정규직	22.2	18.6	19.8	23.5	24.4	27.8	28.8	37.3	43.1	43.0
한시적 근로	23.7	21.3	21.2	25.2	28.4	32.5	33.9	45.4	52.3	51.6
기간제	23.8	22.5	23.8	28.0	32.3	35.9	37.3	48.5	56.9	56.4
반복갱신	37.9	29.8	25.6	30.4	32.1	33.7	34.6	56.9	54.9	52.6
기대불가	7.6	4.5	7.1	7.9	6.4	10.5	10.5	17.6	19.2	21.4
비전형 근로	21.9	18.1	20.6	24.8	24.4	27.8	28.1	34.2	38.9	39.1
파견	39.3	27.7	30.7	42.7	33.9	35.0	35.8	46.9	61.8	60.3
용역	14.5	16.3	14.3	21.6	23.6	29.4	27.8	34.3	40.3	41.4
특수형태근로	46.0	37.9	49.5	50.5	51.8	59.1	61.7	69.3	75.3	74.8
가정 내 근로	8.0	1.9	1.1	9.5	8.3	8.3	6.4	5.3	3.6	15.2
일일근로	2.4	2.1	2.5	4.7	4.0	5.2	5.4	7.7	9.7	11.4
시간제 근로	11.3	8.6	8.4	14.9	14.5	16.5	18.0	26.1	32.4	32.4

주 : 2006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VI. 비정규직의 취업사유

- 근로형태별 취업사유(2015년 8월)를 보면, 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7.7%인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3.8%에 불과함(표 VI-1 참조).
 - 특히 정규직 취업자 중 현재의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여서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3.9%인 반면 비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신 비정규직 취업자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취업했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3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함.

<표 VI-1> 근로형태별 취업사유 구성(2015년 8월)

(단위 : %)

	임금 근로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 제근 로자	
				기간 제	반복 경신	기대 불가	파견	용역	특수 형태	가정 내	일일 근로			
근로조건에 만족	33.2	37.7	23.8	28.9	31.3	32.5	11.8	17.1	31.7	25.5	16.9	17.2	6.6	19.1
안정적인 일자리	26.1	33.9	9.7	14.4	14.7	29.0	3.1	6.2	15.2	13.6	1.4	5.5	0.8	2.2
당장 수입이 필요	24.4	17.7	38.3	34.0	32.1	17.9	55.9	52.7	35.7	49.2	28.2	36.4	76.7	35.3
원하는 분야 일자리 없어	3.9	3.1	5.6	5.8	5.0	3.4	12.0	5.4	5.6	5.6	6.1	3.7	4.7	6.2
전공·경력 부합 일자리 없어	1.2	1.1	1.2	1.2	1.2	1.8	1.0	1.1	1.3	0.3	1.7	0.0	1.2	1.1
경력관리용	3.6	3.6	3.7	5.4	5.6	6.0	3.9	1.4	2.2	1.8	2.2	0.0	0.4	2.1
육아 가사 병행	2.3	0.7	5.4	3.6	3.6	3.5	3.6	4.5	4.4	2.2	8.9	23.9	2.7	12.1
학업, 직훈 등 병행	2.2	0.5	5.9	3.6	3.5	1.9	5.1	1.3	0.0	0.5	0.2	0.0	2.9	14.7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겨서	1.8	1.0	3.5	1.1	1.0	2.2	1.5	7.8	1.0	0.5	28.9	7.9	2.5	1.7
근무시간 신축조절 가능	1.0	0.3	2.3	1.6	1.5	1.2	1.9	2.1	1.4	0.9	5.1	5.5	1.3	4.8
기 타	0.3	0.3	0.5	0.5	0.5	0.6	0.1	0.3	1.5	0.0	0.2	0.0	0.4	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반복갱신, 파견, 기간제는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취업했다는 응답이 각각 32.5%, 31.7%, 31.3%로 정규직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일일근로(6.6%), 기대불가(11.8%), 특수형태근로(16.9%), 가정 내 근로(17.2%), 시간제 근로(19.1%)에서는 낮은 수준임.
 -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서 취업했다는 응답은 반복갱신에서만 29.0%로 정규직에 가까운 비중을 보인 반면 일일근로(0.8%), 시간제 근로(2.2%), 특수형태근로(1.4%), 기대불가(3.1%)에서는 그런 응답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기간제(14.7%), 파견(15.2%), 용역(13.6%)도 해당 응답이 낮아 정규직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5%내외의 미미한 수준인 가운데 특수형태, 가정 내 근로, 시간제 근로가 각각 5.1%, 5.5%, 4.8%로 비교적 높은 응답을 함.
 - 시간제근로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병행(12.1%)하거나 학업을 병행(14.7%)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가정 내 근로에서도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응답이 23.9%로 높게 나타남.
 -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겨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28.9%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중에 비자발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월 50.7%로 나타남. 이는 정규직 2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임(표 VI-2 참조).
 - 통계청은 ‘당장 수입이 필요’, ‘원하는 분야 일자리 없어’, ‘진공·경력 부합하는 일자리 없어’ 취업했다는 응답자와 ‘경력관리용’, ‘육아·가사 병행’, ‘학업, 직혼 등 병행’,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겨서’, ‘근무시간 신축조절 가능’, ‘기타’의 이유로 취업한 응답자 중 비자발적으로 취업했다는 사람들을 합쳐 비자발적 취업자로 정의함.
 - 비정규직의 비자발적 취업 비중은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60% 수준에 육박했으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

한 50.7%를 기록함.

<표 VI-2> 근로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31.7	30.1	38.4	35.0	34.6	33.7	32.2	32.4	32.2	32.4
정규직	22.4	21.0	27.4	23.0	24.7	23.9	22.8	23.4	23.5	23.7
비정규직	48.5	46.2	59.8	57.3	54.5	52.4	51.0	51.2	50.3	50.7
한시적 근로	42.7	38.6	50.5	51.2	47.2	44.9	43.8	44.9	45.0	45.1
기간제	43.2	36.9	44.4	46.8	44.1	42.5	41.0	42.2	43.1	42.2
반복갱신	15.7	17.5	29.2	25.6	20.5	24.7	24.8	23.9	28.6	27.8
기대불가	68.2	73.3	91.3	83.5	79.7	75.5	76.6	76.2	72.6	73.8
비전형 근로	62.9	59.9	73.1	67.1	63.9	64.6	62.7	63.6	62.8	63.7
파견	41.6	34.8	44.3	36.2	37.6	43.4	39.8	46.6	41.3	45.9
용역	53.3	48.9	56.2	58.1	58.0	56.4	57.5	57.1	56.5	57.4
특수형태근로	48.5	43.0	73.3	58.3	45.6	45.9	45.6	47.0	43.0	43.7
가정 내 근로	65.4	58.6	81.8	61.1	56.4	57.9	61.9	57.5	55.6	54.1
일일근로	91.7	89.3	93.4	88.7	88.0	87.9	85.1	86.6	87.4	86.6
시간제 근로	52.9	51.9	67.7	62.0	60.5	55.3	56.0	55.6	52.3	52.6

주 : 2006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대불가, 용역, 가정 내 근로, 일일 근로, 시간제 근로에서 꾸준히 50%를 넘는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취업함. 이들 중 가정 내 근로를 제외하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상승함.
 - 반복갱신 집단은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이며, 기간제, 파견, 특수형태근로에서 비자발적으로 취업한 비중은 절반 이하 수준임.
- 다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비자발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Ⅶ.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 <표 VII-1>의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정규직의 조직률이 비정규직보다 6배 가까이 높음.
- 정규직의 조직률은 15~17%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국제금융위기 이전 4~5% 수준을 유지하다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2%대로 하락함. 이후 2013~2014년에는 3%를 기록했으나 2015년 2.8%로 하락함.
-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 집단의 조직률은 2013년 13.1%를 기록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임. 그러나 2015년에는 7.6%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표 VII-1>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11.4	12.4	11.8	11.3	12.1	12.7	12.2	11.4	10.9	11.5	12.4	12.5	12.3
정규직	15.3	16.7	15.9	15.1	16.0	17.0	17.3	15.7	15.2	15.8	17.0	16.9	16.9
비정규직	3.4	5.2	4.6	4.3	5.1	4.4	2.5	2.8	2.6	2.9	3.0	3.1	2.8
한시적 근로	4.0	5.9	5.8	5.9	7.3	6.4	3.5	4.1	3.9	4.5	4.4	4.6	4.3
기간제	3.9	4.9	6.0	5.0	6.8	6.9	3.9	3.8	3.4	4.2	4.1	4.2	4.6
반복갱신	10.6	14.9	13.3	15.4	14.5	11.0	6.8	12.4	11.6	12.1	13.1	11.8	7.6
기대불가	0.4	0.8	0.7	1.6	1.3	1.2	0.3	0.5	0.7	0.8	1.0	1.4	0.9
비전형 근로	2.6	4.2	2.8	1.9	2.3	2.4	1.5	1.8	1.4	1.6	1.4	1.4	1.4
파견	5.9	5.1	8.8	5.7	5.0	7.1	3.1	3.9	4.6	1.6	2.9	4.2	3.5
용역	1.1	3.3	4.8	4.9	5.4	4.0	3.5	4.9	3.7	4.9	3.9	3.5	3.5
특수형태근로	5.1	7.6	3.4	0.8	1.4	1.9	0.5	0.5	0.1	0.0	0.0	0.0	0.2
가정 내 근로	0.7	3.2	0.9	0.2	0.0	0.0	1.0	0.0	0.0	0.0	1.4	1.0	0.0
일일근로	0.5	0.4	0.0	0.1	0.0	0.5	0.3	0.1	0.0	0.0	0.0	0.0	0.0
시간제 근로	0.3	0.5	0.2	0.4	0.2	0.3	0.4	0.2	0.3	0.3	0.7	0.9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비전형 근로 중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와 시간제 근로, 한시적 근로 중 기대불가 집단은 2015년 기준으로 0~1%대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의 조직률은 2004년에는 반복갱신 다음으로 높은 7.6%였으나 2006년 이후 크게 하락하여 2012년부터 0%를 기록함(2015년 0.2%).
- 정규직의 30.5%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16.7%만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VII-2 참조).
- 기간제나 반복갱신의 경우 정규직에 근접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2015년 기준 반복갱신의 경우 17.4%로 큰 폭으로 하락함.

<표 VII-2> 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22.1	23.6	23.2	23.0	24.8	25.8	26.3	24.7	24.0	25.1	26.1	26.4	26.0
정규직	26.9	28.4	28.3	27.8	29.3	30.7	30.7	28.9	28.6	29.6	30.2	30.6	30.5
비정규직	12.1	15.3	14.6	14.3	16.7	16.4	18.3	16.2	15.1	16.3	17.7	17.6	16.7
한시적 근로	14.7	18.2	17.8	18.3	22.8	23.0	26.1	24.2	22.5	24.7	25.9	25.3	23.7
기간제	15.4	18.5	19.5	18.1	24.1	26.2	30.1	27.3	24.7	27.2	28.7	27.8	27.1
반복갱신	22.5	28.7	24.6	30.9	29.1	24.0	23.1	25.8	25.4	26.2	26.2	25.2	17.4
기대불가	4.7	5.5	6.3	6.0	7.5	8.1	5.5	7.3	6.7	6.6	7.0	8.7	7.1
비전형 근로	8.6	11.3	10.2	7.3	8.8	8.1	7.6	7.4	6.4	7.0	8.4	8.9	8.3
파견	17.7	18.4	23.3	14.9	16.8	19.2	17.8	18.4	17.1	13.3	23.6	16.8	17.9
용역	7.1	10.9	13.3	9.5	13.8	10.3	9.3	12.6	9.2	10.2	10.3	10.6	10.4
특수형태근로	14.8	17.5	15.3	9.9	10.2	9.3	9.7	6.7	8.0	9.3	10.7	15.2	12.4
가정 내 근로	1.6	8.0	3.2	2.2	0.5	1.5	4.3	1.3	1.1	2.2	5.2	2.6	2.9
일일근로	2.2	3.1	2.0	1.9	2.1	3.2	2.5	1.7	1.1	1.4	1.7	1.5	1.9
시간제 근로	5.2	6.5	6.2	6.1	8.1	11.6	12.8	12.6	11.1	12.1	14.0	15.2	14.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비전형 근로와 시간제 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특성상 극히 낮음.
- 노동조합 접근성이 낮아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분석했음.

<표 VII-3> 근로형태별 유노조사업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비중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74.9	73.3	71.8	71.3	71.5	70.5	66.4	68.1	69.6	68.9	70.8	69.9	70.1
정규직	81.6	80.5	79.2	78.2	79.0	78.6	79.7	78.5	80.0	79.3	81.9	81.1	81.3
비정규직	43.9	50.8	47.0	47.2	47.8	40.8	24.6	31.0	31.7	31.3	31.6	29.0	27.4
한시적 근로	43.1	49.9	49.2	51.0	50.9	43.1	24.1	30.4	32.5	32.4	32.3	30.4	29.5
기간제	41.5	42.7	47.2	47.0	46.3	41.2	23.3	26.5	27.4	29.6	28.7	26.5	27.3
반복갱신	62.8	73.8	76.7	68.9	73.6	65.9	45.0	66.8	76.3	63.9	75.1	67.3	64.3
기대불가	13.6	27.8	22.1	29.2	26.2	24.0	17.3	24.3	19.2	21.3	28.0	23.4	25.3
비전형 근로	51.0	54.7	37.7	37.8	39.3	40.5	33.6	40.6	33.1	33.4	30.9	23.8	23.4
파견	61.3	49.3	41.2	54.4	53.8	50.9	36.1	35.8	47.5	36.8	42.5	43.1	29.5
용역	39.0	62.1	57.4	68.9	57.2	52.8	51.3	57.6	53.3	57.2	50.4	47.0	43.8
특수형태근로	55.2	56.6	29.3	13.6	20.8	30.4	15.7	21.1	4.9	6.7	2.1	0.0	2.6
시간제 근로	16.6	13.5	8.1	10.1	8.8	8.5	10.2	7.4	6.1	5.0	8.9	11.8	8.9

주 :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집계에서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정규직 10명 중 8명이 노조가입자격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27.4%에 불과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자격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표 VII-3 참조).
- 반복갱신 집단은 다른 비정규직 근로형태보다 정규직에 가깝고, 용역은 43.8%, 파견은 29.5%가 가입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파견·용역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견의 경우 2015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함(전년대비 13.6%포인트 하락).

- 시간제 근로의 경우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5.0%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2015년에는 8.9%).

<표 VII-4>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자격 있는 사람 중 조합원 비중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69.0	71.9	70.5	68.9	68.0	69.9	69.5	67.9	65.3	66.4	67.1	67.6	67.6
정규직	69.7	73.0	71.1	69.8	68.9	70.5	70.8	69.1	66.5	67.3	68.7	68.2	68.1
비정규직	63.0	66.7	67.2	63.8	63.7	65.7	56.0	56.7	54.5	57.6	52.9	61.4	62.3
한시적 근로	63.4	65.1	65.9	63.2	63.3	64.6	56.1	56.5	53.0	56.3	52.4	60.1	62.2
기간제	60.9	62.3	65.3	58.4	61.2	63.5	55.9	53.3	50.4	52.8	49.3	57.0	61.8
반복갱신	74.6	70.5	70.7	72.3	67.7	69.8	65.0	72.1	59.9	72.4	65.8	69.5	67.7
기대불가	56.5	54.3	50.6	89.6	67.8	62.6	32.0	25.9	57.1	55.4	54.3	69.5	51.8
비전형 근로	59.0	67.9	73.0	70.2	66.5	72.7	57.8	60.0	66.8	69.0	56.2	67.7	71.8
파견	54.7	55.7	92.0	70.8	55.4	72.8	48.1	59.0	56.3	33.3	29.3	58.6	65.8
용역	40.6	49.3	62.5	74.5	69.2	72.9	72.8	67.8	74.3	84.3	74.2	71.3	76.2
특수형태근로	62.4	77.0	76.3	60.2	68.1	67.5	35.1	32.5	29.2	0.0	0.0	0.0	56.3
시간제 근로	30.0	61.7	38.5	58.6	34.9	35.0	32.6	25.7	37.4	41.8	53.0	51.6	40.3

주: 일일근로와 가정 내 근로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집계에서 제외함. 기대불가의 경우 수치가 얼마 되지 않아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표 VII-4>에서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 조합원 비중을 보면, 가입자격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특수형태근로는 가입자격이 있을 경우 2004년 77%가 가입했지만 200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4년에는 0%를 보임.
- 시간제 근로는 가입자격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하는 특징이 있음.

부 표

(각 연도 8월 기준)

※ 제9차 표준산업분류와 제6차 표준직업분류가 2004년 이후부터 제공되어 2002~03년은 제외함.

<부표 1> 임금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성	남 성	8,489	8,682	8,909	9,235	9,366	9,515	9,783	10,034	10,134	10,392	10,635	10,878
	여 성	6,096	6,286	6,442	6,647	6,737	6,964	7,265	7,476	7,600	7,848	8,141	8,434
연령	15~29세	4,080	4,010	3,891	3,892	3,756	3,663	3,627	3,655	3,586	3,542	3,672	3,740
	30~39세	4,446	4,516	4,655	4,637	4,733	4,694	4,757	4,789	4,800	4,793	4,801	4,804
	40~49세	3,581	3,759	3,888	4,100	4,216	4,354	4,540	4,647	4,663	4,844	4,867	4,909
	50~59세	1,722	1,869	2,032	2,252	2,388	2,562	2,852	3,058	3,241	3,480	3,710	3,905
	60세 이상	756	814	885	1,002	1,011	1,205	1,272	1,360	1,443	1,581	1,726	1,955
학력	중졸 이하	2,716	2,676	2,677	2,666	2,552	2,639	2,668	2,665	2,595	2,510	2,464	2,528
	고졸 이하	6,401	6,534	6,582	6,659	6,602	6,603	6,807	6,824	6,877	6,968	7,315	7,437
	전문대졸	1,748	1,864	1,968	2,150	2,248	2,335	2,441	2,614	2,745	2,843	2,805	2,809
	대졸 이상	3,719	3,894	4,125	4,407	4,702	4,902	5,131	5,408	5,517	5,919	6,193	6,538
산업	농어업	143	146	125	146	143	162	170	174	136	135	126	125
	광 업	11	14	13	17	22	20	19	11	13	16	13	14
	제조업	3,496	3,433	3,365	3,360	3,352	3,222	3,482	3,448	3,560	3,615	3,831	4,006
	전기 등	69	68	74	77	89	95	77	70	76	96	82	91
	하수 등	41	50	53	56	62	63	64	70	70	70	83	83
	건설업	1,300	1,327	1,353	1,393	1,396	1,324	1,388	1,396	1,315	1,351	1,360	1,388
	도소매	1,817	1,850	1,877	1,940	1,891	1,931	2,016	2,097	2,151	2,123	2,274	2,235
	운 수	622	636	663	677	666	674	694	722	732	761	763	783
	숙박음식	1,063	1,116	1,100	1,175	1,145	1,102	1,133	1,095	1,135	1,237	1,304	1,426
	출판 등	540	566	589	613	566	609	600	658	631	650	634	714
	금융보험	686	690	734	744	774	715	780	826	799	848	805	751
	부동산임대	264	314	293	298	287	302	327	308	313	336	349	363
	전문과학	484	509	554	596	646	721	734	851	904	863	883	910
	사업서비스	658	720	796	936	927	912	1,023	1,089	1,089	1,094	1,100	1,166

산업	공공행정	758	780	815	800	856	1,178	964	986	967	984	974	950
	교육	1,209	1,255	1,344	1,366	1,420	1,468	1,414	1,350	1,376	1,407	1,428	1,458
	보건사회복지	549	581	631	678	776	943	1,123	1,237	1,327	1,486	1,638	1,695
	예술 및 여가	173	221	240	222	277	231	229	249	251	258	246	289
	협회, 개인서비스	571	543	582	611	652	656	658	714	719	731	776	781
	가구내 등	105	122	130	160	140	138	139	149	160	174	91	64
	국 제	24	26	19	18	17	13	14	8	10	6	16	19
직업	관리자	257	287	292	360	333	349	388	379	370	312	338	298
	전문가	2,694	2,776	3,071	3,309	3,507	3,556	3,689	3,860	3,869	4,151	4,185	4,282
	사무직	3,103	3,167	3,150	3,184	3,337	3,373	3,549	3,768	3,836	3,951	4,043	4,116
	서비스	1,352	1,429	1,425	1,429	1,540	1,506	1,548	1,575	1,651	1,667	1,786	1,840
	판매	1,341	1,353	1,378	1,427	1,396	1,448	1,475	1,456	1,549	1,557	1,644	1,660
	농업숙련	55	58	49	67	50	58	67	62	56	56	47	49
	기능원 등	1,625	1,651	1,659	1,636	1,658	1,572	1,630	1,606	1,594	1,600	1,605	1,722
	기계조작 등	1,839	1,811	1,846	1,813	1,720	1,722	1,820	1,865	1,979	2,085	2,180	2,273
단순노무직	2,318	2,437	2,480	2,658	2,564	2,895	2,882	2,938	2,830	2,862	2,949	3,072	
규모	1~4인	2,809	2,974	3,084	3,172	3,139	3,058	3,196	3,355	3,398	3,481	3,576	3,611
	5~9인	2,447	2,484	2,575	2,698	2,791	2,740	2,905	2,977	3,054	3,203	3,292	3,410
	10~29인	3,150	3,186	3,267	3,531	3,593	3,715	3,859	3,972	4,041	4,007	4,147	4,307
	30~99인	2,876	2,941	3,025	3,112	3,134	3,309	3,485	3,473	3,424	3,621	3,634	3,732
	100~299인	1,489	1,484	1,560	1,535	1,594	1,656	1,675	1,769	1,734	1,739	1,821	1,862
	300인 이상	1,814	1,899	1,840	1,833	1,853	2,002	1,928	1,963	2,082	2,190	2,306	2,390
종사상 지위	상용직	7,700	7,926	8,243	8,763	9,107	9,472	10,151	10,710	11,203	11,842	12,165	12,675
	임시직	4,813	4,879	5,018	5,044	4,970	5,117	5,122	5,031	4,935	4,862	5,104	5,106
	일용직	2,071	2,164	2,090	2,075	2,027	1,890	1,775	1,769	1,595	1,536	1,507	1,531
근속 연수	1년 미만	5,752	5,880	6,120	6,099	6,014	6,228	6,371	6,290	6,129	5,971	6,069	6,295
	1~2년 미만	2,224	2,041	2,115	2,320	2,193	2,143	2,185	2,388	2,344	2,468	2,472	2,464
	2~3년 미만	1,192	1,354	1,220	1,323	1,400	1,290	1,445	1,333	1,540	1,452	1,573	1,587
	3년 이상	5,417	5,693	5,896	6,139	6,497	6,817	7,046	7,499	7,721	8,349	8,663	8,966

<부표 2> 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9,190	9,486	9,894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13,041
성	남 성	5,756	5,947	6,204	6,328	6,667	6,833	7,134	7,242	7,377	7,634	7,809	7,997
	여 성	3,434	3,539	3,690	3,851	3,991	3,891	4,228	4,273	4,445	4,661	4,890	5,044
연령	15~29세	2,654	2,605	2,606	2,590	2,519	2,416	2,410	2,412	2,375	2,337	2,400	2,431
	30~39세	3,018	3,145	3,270	3,254	3,469	3,513	3,647	3,626	3,692	3,730	3,755	3,785
	40~49세	2,297	2,395	2,563	2,703	2,882	2,946	3,188	3,230	3,306	3,525	3,575	3,631
	50~59세	979	1,069	1,181	1,291	1,442	1,521	1,731	1,846	2,024	2,188	2,428	2,555
	60세 이상	243	272	275	341	346	329	387	401	426	514	541	638
학력	중졸 이하	1,206	1,157	1,190	1,154	1,137	1,030	1,140	1,112	1,109	1,049	1,027	1,012
	고졸 이하	3,991	4,039	4,177	4,165	4,173	4,091	4,330	4,239	4,274	4,372	4,635	4,681
	전문대졸	1,244	1,359	1,396	1,547	1,694	1,733	1,841	1,943	2,077	2,184	2,122	2,126
	대졸 이상	2,749	2,932	3,132	3,314	3,654	3,871	4,051	4,221	4,362	4,689	4,915	5,221
산업	농어업	35	32	28	47	46	53	50	54	44	52	49	38
	광업	9	12	11	13	20	16	16	10	11	14	11	10
	제조업	2,680	2,723	2,688	2,670	2,796	2,699	2,962	2,911	3,061	3,112	3,331	3,459
	전기 등	53	55	63	68	81	86	69	61	64	83	70	78
	하수 등	32	36	40	43	44	47	50	60	56	57	69	66
	건설업	478	489	567	586	629	597	669	679	624	658	684	663
	도소매	1,162	1,197	1,263	1,290	1,258	1,296	1,394	1,450	1,496	1,497	1,642	1,589
	운수	448	467	492	504	519	530	578	573	586	608	607	635
	숙박음식	610	576	662	718	712	681	700	654	682	731	741	834
	출판 등	371	414	430	450	412	478	475	522	494	499	499	576
	금융보험	384	369	356	367	427	401	463	483	479	513	466	461
	부동산임대	148	187	179	182	182	167	193	174	175	198	208	205
	전문과학	350	382	417	437	506	593	609	694	765	713	744	759
	사업서비스	148	162	166	184	167	191	216	222	224	251	264	302

산업	공공행정	588	610	622	604	651	654	640	699	686	702	691	678
	교 육	759	788	851	896	944	955	877	795	823	887	885	921
	보건사회복지	403	425	472	499	569	626	721	771	838	963	1,027	1,056
	예술 및 여가	95	119	136	120	160	133	133	120	127	139	134	150
	협회, 개인서비스	399	394	413	435	463	472	488	515	513	535	524	518
	가구내 등	23	25	23	52	57	37	49	61	64	79	39	27
	국 제	17	23	14	14	16	11	12	7	9	6	15	16
직업	관리자	209	244	244	297	289	306	340	335	315	273	297	253
	전문가	1,901	2,001	2,231	2,411	2,625	2,714	2,787	2,820	2,887	3,133	3,152	3,222
	사무직	2,390	2,485	2,440	2,457	2,684	2,742	2,905	3,084	3,148	3,246	3,351	3,465
	서비스	805	802	870	885	986	939	955	941	976	994	1,077	1,091
	판 매	705	713	748	739	714	746	775	743	799	831	893	923
	농업숙련	19	18	18	27	29	32	32	31	25	35	25	25
	기능원 등	888	936	947	951	988	930	1,010	986	1,000	1,051	1,051	1,106
	기계조작 등	1,414	1,432	1,474	1,418	1,386	1,389	1,506	1,509	1,637	1,695	1,779	1,839
단순노무직	859	855	922	997	957	927	1,052	1,067	1,036	1,037	1,075	1,117	
규모	1~4인	1,437	1,474	1,647	1,676	1,745	1,696	1,738	1,808	1,800	1,866	1,899	1,896
	5~9인	1,404	1,477	1,583	1,667	1,698	1,636	1,813	1,821	1,891	2,009	2,079	2,091
	10~29인	1,941	1,993	2,033	2,183	2,285	2,217	2,472	2,489	2,641	2,656	2,750	2,859
	30~99인	1,913	1,960	2,032	2,086	2,197	2,250	2,385	2,376	2,359	2,547	2,566	2,668
	100~299인	1,051	1,056	1,128	1,092	1,201	1,267	1,324	1,394	1,355	1,360	1,468	1,471
	300인 이상	1,444	1,524	1,471	1,476	1,532	1,659	1,631	1,626	1,776	1,857	1,937	2,056
종사상 지위	상용직	6,088	6,413	6,639	6,931	7,498	7,829	8,272	8,651	9,108	9,726	10,047	10,496
	임시직	2,844	2,803	2,926	2,936	2,806	2,565	2,790	2,590	2,525	2,383	2,471	2,394
	일용직	258	269	329	313	354	331	300	274	190	186	182	151
근속 연수	1년 미만	2,617	2,630	2,938	2,883	2,857	2,628	2,980	2,869	2,830	2,696	2,737	2,724
	1~2년 미만	1,389	1,320	1,372	1,506	1,428	1,392	1,414	1,534	1,519	1,648	1,649	1,632
	2~3년 미만	800	909	839	882	1,001	905	1,020	919	1,086	1,019	1,112	1,132
	3년 이상	4,384	4,626	4,745	4,909	5,373	5,799	5,949	6,193	6,388	6,932	7,201	7,553

<부표 3>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5,394	5,482	5,457	5,703	5,445	5,754	5,685	5,994	5,911	5,946	6,077	6,271
성	남 성	2,732	2,736	2,705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826	2,882
	여 성	2,662	2,747	2,752	2,796	2,746	3,073	3,037	3,203	3,154	3,187	3,251	3,390
연령	15~29세	1,426	1,405	1,285	1,302	1,237	1,247	1,217	1,243	1,211	1,205	1,272	1,309
	30~39세	1,429	1,371	1,385	1,383	1,264	1,181	1,110	1,163	1,108	1,063	1,046	1,019
	40~49세	1,284	1,364	1,325	1,397	1,334	1,408	1,352	1,417	1,358	1,319	1,293	1,278
	50~59세	743	800	851	960	946	1,041	1,121	1,212	1,217	1,292	1,282	1,349
	60세 이상	512	543	611	661	664	876	885	959	1,017	1,067	1,185	1,316
학력	중졸 이하	1,510	1,519	1,487	1,511	1,415	1,609	1,529	1,553	1,486	1,461	1,437	1,516
	고졸 이하	2,410	2,496	2,405	2,495	2,429	2,513	2,477	2,585	2,602	2,596	2,680	2,756
	전문대졸	504	506	572	603	555	602	600	671	667	659	683	683
	대졸 이상	970	962	993	1,093	1,047	1,030	1,079	1,186	1,155	1,230	1,278	1,316
산업	농어업	108	114	97	99	97	109	120	121	91	83	77	88
	광업	2	2	2	3	2	3	3	1	1	1	2	4
	제조업	816	710	677	690	555	523	520	538	499	503	500	547
	전기 등	16	13	11	9	8	9	8	9	12	13	12	13
	하수 등	9	14	12	13	17	16	14	10	15	13	14	16
	건설업	822	838	786	807	767	727	719	717	691	693	676	726
	도소매	656	653	614	650	633	634	623	647	655	626	633	646
	운수	175	170	171	173	146	144	116	149	146	153	157	148
	숙박음식	452	540	438	457	433	421	434	441	452	507	563	592
	출판 등	170	152	159	163	154	130	125	136	138	151	135	139
	금융보험	302	321	379	378	346	314	317	343	319	336	339	290
	부동산임대	116	127	114	115	106	135	134	134	139	138	142	158
	전문과학	134	127	137	159	140	127	125	157	139	151	139	150
	사업서비스	510	559	631	752	761	721	806	867	865	843	836	864

산업	공공행정	171	170	194	196	206	524	324	287	282	282	283	272
	교 육	450	467	493	470	475	513	537	555	553	520	543	537
	보건사회복지	146	156	159	179	207	317	402	465	489	523	610	639
	예술 및 여가	78	102	104	102	117	99	97	129	124	119	111	139
	협회, 개인서비스	172	150	169	176	189	184	170	199	205	196	252	263
	가구내 등	82	96	107	108	83	101	90	88	95	96	52	36
	국 제	7	3	5	4	2	2	2	1	1	0	1	3
직업	관리자	48	43	48	63	43	43	48	44	55	39	41	45
	전문가	793	774	840	898	881	842	902	1,040	982	1,018	1,033	1,060
	사무직	713	682	711	728	653	631	643	684	688	706	692	651
	서비스	547	627	555	544	554	567	593	634	675	673	709	750
	판 매	636	641	630	688	682	702	700	713	750	726	751	737
	농업숙련	36	41	31	40	21	26	34	31	31	21	22	25
	기능원 등	737	715	712	686	670	642	621	620	594	549	553	616
	기계조작 등	424	379	373	395	333	332	313	357	342	390	402	433
단순노무직	1,458	1,582	1,558	1,661	1,607	1,968	1,830	1,871	1,794	1,824	1,875	1,955	
규모	1~4인	1,372	1,499	1,436	1,496	1,394	1,362	1,457	1,546	1,599	1,616	1,677	1,716
	5~9인	1,043	1,006	992	1,032	1,092	1,104	1,092	1,156	1,163	1,193	1,213	1,319
	10~29인	1,210	1,193	1,235	1,348	1,308	1,497	1,387	1,483	1,400	1,351	1,397	1,447
	30~99인	962	981	992	1,026	937	1,059	1,100	1,097	1,065	1,074	1,068	1,064
	100~299인	437	428	432	444	393	389	351	375	379	379	354	391
	300인 이상	370	375	369	358	321	343	297	337	305	333	369	334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12	1,512	1,603	1,832	1,609	1,643	1,878	2,058	2,096	2,117	2,119	2,179
	임시직	1,969	2,076	2,092	2,108	2,164	2,552	2,332	2,441	2,410	2,480	2,633	2,712
	일용직	1,813	1,894	1,762	1,762	1,673	1,559	1,475	1,495	1,405	1,349	1,326	1,381
근속 연수	1년 미만	3,135	3,249	3,182	3,216	3,157	3,600	3,391	3,421	3,300	3,276	3,332	3,571
	1~2년 미만	835	721	742	815	765	751	771	854	824	820	822	832
	2~3년 미만	392	445	381	442	399	385	426	414	454	433	461	455
	3년 이상	1,033	1,068	1,151	1,230	1,124	1,018	1,097	1,306	1,333	1,417	1,462	1,412

<부표 4>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3,597	3,614	3,626	3,546	3,288	3,507	3,281	3,442	3,403	3,431	3,507	3,638
성	남 성	1,916	1,864	1,914	1,922	1,701	1,683	1,576	1,644	1,668	1,643	1,726	1,747
	여 성	1,681	1,750	1,712	1,625	1,587	1,824	1,704	1,798	1,735	1,789	1,781	1,891
연령	15~29세	1,068	1,057	989	939	864	875	805	798	732	741	766	768
	30~39세	943	902	945	924	813	722	672	734	732	672	659	677
	40~49세	803	842	800	776	718	738	690	729	707	703	690	712
	50~59세	476	483	521	517	507	573	562	603	622	663	655	677
	60세 이상	307	331	371	389	386	600	551	579	610	652	739	804
학력	중졸 이하	910	886	873	784	741	933	789	794	750	774	771	817
	고졸 이하	1,562	1,611	1,534	1,443	1,334	1,412	1,316	1,304	1,360	1,334	1,350	1,409
	전문대졸	381	385	442	472	425	436	400	480	467	446	460	454
	대졸 이상	744	733	778	848	788	726	776	864	826	877	926	958
산업	농어업	66	64	55	44	47	35	52	33	25	31	29	22
	광업	2	2	1	2	2	2	2	62	1	1	2	4
	제조업	626	578	555	548	434	389	393	268	377	387	381	413
	전기 등	14	13	11	9	6	9	7	47	11	12	9	10
	하수 등	7	9	12	13	15	14	10	92	13	9	12	13
	건설업	489	459	435	354	307	234	189	199	203	193	212	229
	도소매	390	389	383	357	321	291	259	247	258	260	270	278
	운수	106	116	125	119	107	105	73	87	106	108	106	98
	숙박음식	301	374	283	259	253	213	181	108	192	213	221	233
	출판 등	146	127	142	144	129	105	107	133	111	114	110	107
	금융보험	141	135	166	155	122	96	90	87	86	88	80	68
	부동산임대	81	96	83	80	72	92	85	122	96	101	112	113
	전문과학	108	106	120	138	127	116	111	132	121	131	118	127
	사업서비스	313	315	375	456	451	505	559	554	577	565	553	573

산업	공공행정	144	142	172	166	182	511	313	307	270	268	268	260
	교 육	322	334	331	314	322	334	355	381	361	349	350	365
	보건사회복지	132	138	140	156	178	268	322	346	412	407	487	512
	예술 및 여가	62	72	79	68	75	62	62	84	65	67	70	71
	협회, 개인서비스	102	95	107	111	104	94	89	64	94	93	105	127
	가구내 등	39	48	47	49	34	29	20	9	22	33	12	11
	국 제	6	3	5	4	2	0	1	1	1	0	1	3
직업	관리자	44	40	46	59	41	40	40	39	49	36	37	41
	전문가	616	602	640	686	684	613	654	775	726	763	770	789
	사무직	612	595	639	637	579	569	556	589	581	584	561	532
	서비스	367	428	379	334	326	318	318	340	343	338	333	376
	판 매	278	265	272	272	227	237	211	182	218	196	214	215
	농업숙련	25	25	22	23	14	16	18	17	19	16	16	15
	기능원 등	467	440	448	367	324	275	263	274	268	208	230	261
	기계조작 등	317	284	296	291	244	259	227	255	248	285	301	319
단순노무직	872	936	883	876	849	1,180	994	970	952	1,006	1,045	1,090	
규모	1~4인	777	871	779	679	652	572	548	572	599	628	643	682
	5~9인	663	605	634	574	587	575	516	573	577	608	625	691
	10~29인	794	776	823	862	803	986	884	922	883	846	884	895
	30~99인	686	685	703	723	617	742	775	773	752	742	736	747
	100~299인	350	353	353	383	327	321	284	296	312	309	286	314
	300인 이상	328	324	334	325	301	310	274	307	280	298	333	309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93	1,345	1,484	1,667	1,453	1,492	1,721	1,858	1,865	1,836	1,842	1,896
	임시직	1,243	1,272	1,238	1,220	1,267	1,589	1,266	1,318	1,271	1,320	1,393	1,471
	일용직	962	998	905	660	569	426	294	267	266	275	273	271
근속 연수	1년 미만	1,967	2,010	1,951	1,721	1,658	2,038	1,736	1,695	1,670	1,681	1,740	1,881
	1~2년 미만	592	522	526	586	529	510	519	575	540	542	532	565
	2~3년 미만	296	323	284	315	286	270	292	292	305	288	308	310
	3년 이상	741	759	865	924	815	689	734	881	889	920	927	881

<부표 5> 기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2,491	2,728	2,722	2,531	2,365	2,815	2,494	2,668	2,714	2,761	2,749	2,860
성	남 성	1,348	1,483	1,466	1,408	1,273	1,364	1,211	1,265	1,318	1,340	1,341	1,367
	여 성	1,144	1,244	1,255	1,123	1,093	1,451	1,283	1,403	1,395	1,421	1,409	1,493
연령	15~29세	791	873	781	731	663	739	647	647	600	604	613	586
	30~39세	607	667	675	638	584	573	487	544	568	539	494	520
	40~49세	525	577	575	503	476	532	468	527	530	531	488	525
	50~59세	336	362	390	363	347	450	429	445	496	510	499	519
	60세 이상	233	248	301	296	295	522	463	504	520	577	655	710
학력	중졸 이하	635	611	653	564	505	727	610	631	610	631	635	674
	고졸 이하	1,078	1,197	1,159	997	912	1,099	968	975	1,037	1,048	1,004	1,027
	전문대졸	257	308	323	343	326	368	312	395	392	362	366	360
	대졸 이상	521	611	588	627	621	621	605	667	675	720	744	799
산업	농어업	57	54	50	37	34	25	39	19	18	21	17	14
	광업	0	1	0	0	1	1	2	1	1	0	1	1
	제조업	371	401	365	345	278	277	247	266	259	279	264	297
	전기 등	9	10	10	6	5	9	6	6	8	9	7	9
	하수 등	4	7	10	10	13	12	8	8	12	7	7	10
	건설업	405	394	364	286	236	175	120	150	134	143	149	171
	도소매	225	244	261	207	197	180	145	138	171	173	166	176
	운수	63	85	85	73	80	84	53	72	82	83	73	66
	숙박음식	166	214	190	133	106	111	70	86	104	118	128	118
	출판 등	111	107	110	117	105	79	84	95	80	88	90	80
	금융보험	102	116	126	117	98	80	65	75	69	70	57	47
	부동산임대	48	69	60	52	51	70	67	63	79	79	87	90
	전문과학	81	91	95	101	98	104	77	101	103	102	89	99
	사업서비스	246	268	310	375	387	450	505	532	525	513	497	505

산업	공공행정	120	122	151	136	142	502	299	267	262	264	262	256
	교 육	249	285	269	260	266	295	311	333	320	319	304	323
	보건사회복지	96	113	99	120	137	239	282	323	365	357	421	450
	예술 및 여가	48	54	63	49	58	51	46	57	55	55	51	51
	협회, 개인서비스	67	65	73	74	59	62	62	64	60	69	73	89
	가구내 등	21	24	30	29	13	9	5	9	6	12	5	4
	국 제	4	1	2	4	2	0	1	1	1	0	1	3
직업	관리자	31	34	36	41	32	32	32	30	40	28	29	36
	전문가	438	502	489	522	530	524	532	638	615	653	642	665
	사무직	433	489	489	483	444	508	454	472	487	484	459	437
	서비스	230	269	270	205	184	227	217	248	255	242	228	264
	판 매	166	171	182	159	147	156	123	111	140	134	132	131
	농업숙련	20	21	19	17	10	11	14	13	14	15	11	8
	기능원 등	357	360	350	260	226	201	175	190	181	153	163	183
	기계조작 등	181	197	186	186	174	199	162	189	191	227	224	246
단순노무직	635	684	700	660	618	959	785	777	791	826	861	888	
규모	1~4인	494	551	546	425	351	334	325	363	415	447	439	451
	5~9인	452	427	474	382	393	418	347	406	430	444	466	497
	10~29인	566	617	626	642	629	841	713	762	720	697	714	727
	30~99인	504	568	546	546	490	661	658	649	641	658	612	647
	100~299인	246	297	277	285	261	282	238	237	259	262	240	269
	300인 이상	230	268	253	251	241	279	214	251	248	252	278	268
종사상 지위	상용직	994	1,178	1,168	1,268	1,201	1,365	1,479	1,574	1,618	1,610	1,549	1,641
	임시직	685	725	750	751	765	1,196	856	925	905	964	1,012	1,030
	일용직	813	824	803	512	400	255	160	168	191	187	188	188
근속 연수	1년 미만	1,454	1,537	1,540	1,291	1,180	1,620	1,339	1,338	1,359	1,372	1,410	1,483
	1~2년 미만	386	375	382	400	377	414	377	432	420	441	424	453
	2~3년 미만	193	246	212	208	209	216	228	237	242	235	227	237
	3년 이상	459	570	587	632	599	565	550	661	693	713	689	686

<부표 6> 계약 반복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	전 체	580	302	465	555	374	170	305	339	289	259	353	305
	남 성	369	171	272	333	202	104	168	188	167	132	202	163
	여 성	211	131	194	222	172	66	137	151	122	127	152	142
연령	15~29세	164	65	125	127	106	36	69	68	53	54	62	73
	30~39세	204	95	155	203	120	53	92	119	110	73	101	82
	40~49세	136	94	100	134	79	49	94	87	64	77	103	80
	50~59세	53	36	57	61	48	21	44	49	36	41	63	43
	60세 이상	22	13	28	30	21	11	7	16	26	15	24	27
학력	중졸 이하	79	60	68	56	42	25	25	30	30	26	35	37
	고졸 이하	238	135	161	211	147	57	105	115	111	81	134	107
	전문대졸	88	33	80	96	61	32	49	56	44	49	54	54
	대졸 이상	176	75	156	191	124	57	126	137	105	103	130	107
산업	농어업	3	3	1	1	1	3	2	1	1	1	4	0
	광업	1	1	0	1	0	0	0	0	0	1	1	3
	제조업	163	79	104	133	84	31	66	61	50	41	69	46
	전기 등	4	2	2	4	1	0	1	2	3	3	2	0
	하수 등	3	2	1	2	1	1	1	1	1	2	3	1
	건설업	34	14	27	34	20	10	21	15	21	16	22	10
	도소매	78	44	53	83	48	16	30	40	27	32	39	38
	운수	30	14	27	29	14	8	9	21	16	11	17	8
	숙박음식	22	39	16	19	13	7	10	12	12	11	14	21
	출판 등	32	12	25	25	17	18	17	15	28	20	14	18
	금융보험	33	11	31	31	11	9	21	25	13	15	17	19
	부동산임대	12	6	11	13	5	4	9	5	6	4	10	9
	전문과학	19	7	16	31	24	7	26	28	13	20	22	18
	사업서비스	42	10	41	48	35	23	23	28	26	28	36	39

산업	공공행정	10	4	12	12	20	2	7	5	5	2	2	2
	교 육	44	17	42	39	29	10	26	26	17	13	18	16
	보건사회복지	27	13	36	24	29	19	27	36	33	30	48	36
	예술 및 여가	8	9	3	7	4	1	3	5	4	3	6	4
	협회, 개인서비스	13	10	14	19	16	2	8	11	13	6	9	14
	가구내 등	2	2	0	0	2	1	0	1	1	0	0	1
	국 제	2	2	3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10	5	8	17	8	8	8	8	6	6	7	1
	전문가	142	54	114	144	104	44	93	95	72	71	88	79
	사무직	132	56	114	119	96	36	72	82	64	71	70	60
	서비스	30	44	23	27	22	10	20	21	21	21	30	29
	판 매	49	24	38	56	24	10	21	25	27	16	32	31
	농업숙련	1	1	1	1	0	2	0	1	1	0	2	0
	기능원 등	45	19	39	50	34	14	28	29	26	13	23	22
	기계조작 등	95	43	67	70	32	18	32	33	28	28	44	28
단순노무직	76	57	62	71	54	28	30	45	43	33	58	56	
규모	1~4인	51	58	48	67	50	15	25	26	29	23	39	52
	5~9인	82	53	66	80	66	26	47	55	46	36	57	64
	10~29인	133	53	97	124	78	44	69	83	80	76	93	75
	30~99인	134	54	124	135	84	39	76	85	72	53	82	52
	100~299인	93	38	61	79	49	22	37	41	37	32	35	30
	300인 이상	88	45	71	70	47	24	52	48	25	39	48	33
종사상 지위	상용직	398	165	314	396	249	126	242	254	212	198	257	212
	임시직	169	118	144	137	110	39	57	78	75	55	88	88
	일용직	13	19	8	22	14	6	6	7	2	7	8	5
근속 연수	1년 미만	169	80	116	123	116	54	80	82	70	70	89	98
	1~2년 미만	107	49	68	103	58	21	48	62	53	32	51	53
	2~3년 미만	74	37	46	74	48	23	30	29	34	26	43	33
	3년 이상	231	135	235	256	152	72	147	166	132	131	170	121

<부표 7>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한시적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526	585	439	460	549	521	481	436	400	412	405	473
성	남 성	199	209	177	180	226	215	197	191	183	171	184	217
	여 성	327	376	263	279	323	307	284	244	217	241	221	256
연령	15~29세	114	119	83	81	95	99	89	83	79	83	90	109
	30~39세	132	140	116	84	109	96	93	71	53	60	63	75
	40~49세	142	170	125	139	163	157	128	115	113	95	99	106
	50~59세	86	85	74	93	112	102	90	108	89	113	92	115
	60세 이상	52	70	42	63	69	67	81	58	65	61	60	67
학력	중졸 이하	196	215	152	163	193	181	154	133	110	117	101	106
	고졸 이하	247	279	214	235	275	255	242	214	212	205	212	275
	전문대졸	35	44	40	33	37	36	40	29	31	36	40	40
	대졸 이상	47	47	34	29	43	49	45	60	46	54	52	51
산업	농어업	7	6	5	6	12	8	12	13	6	10	8	8
	광업	0	1	0	1	0	1	0	0	0	0	0	0
	제조업	93	98	86	70	72	80	80	76	69	66	48	70
	전기 등	1	0	0	0	0	0	0	0	0	0	0	1
	하수 등	0	1	1	1	1	1	1	0	0	0	1	2
	건설업	51	51	44	34	51	49	48	41	48	34	42	49
	도소매	87	101	69	67	76	96	84	69	60	55	66	63
	운수	13	17	13	18	12	14	11	9	8	14	16	24
	숙박음식	113	121	78	107	134	95	102	88	76	85	80	93
	출판 등	3	8	7	2	7	8	6	3	3	6	6	9
	금융보험	5	8	8	7	12	7	4	7	4	3	5	1
	부동산임대	22	21	12	15	16	18	9	13	11	18	14	14
	전문과학	8	8	8	6	5	6	7	7	6	9	6	10
	사업서비스	25	37	24	33	30	33	31	31	26	24	19	29

산업	공공행정	14	15	10	18	20	7	8	3	3	2	5	2
	교육	30	32	20	14	27	29	18	18	24	16	28	26
	보건사회복지	9	11	6	12	11	11	13	13	14	20	19	26
	예술 및 여가	6	9	14	12	13	10	13	11	6	10	13	16
	협회, 개인서비스	23	20	19	19	29	30	19	19	22	18	23	24
	가구내 등	16	21	18	19	18	20	15	16	16	20	6	6
국 제	0	0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3	0	2	1	1	0	1	1	2	2	2	4
	전문가	36	46	37	20	50	45	29	41	39	39	40	45
	사무직	47	50	36	36	38	25	29	36	31	29	32	34
	서비스	107	115	86	102	120	81	80	71	68	75	75	83
	판매	62	70	52	57	57	72	67	46	50	46	50	53
	농업숙련	4	3	2	5	3	2	3	4	3	2	3	7
	기능원 등	66	62	59	57	63	61	60	55	60	42	45	55
	기계조작 등	41	44	43	36	39	42	33	33	28	30	33	44
단순노무직	160	195	122	145	177	193	179	149	118	146	125	147	
규모	1~4인	232	262	186	188	252	223	198	182	155	157	164	179
	5~9인	129	125	94	112	128	131	122	112	101	128	102	129
	10~29인	95	105	100	96	96	101	102	77	82	73	78	92
	30~99인	48	63	33	42	43	42	41	39	39	31	42	49
	100~299인	12	19	16	18	17	18	10	18	16	15	11	15
	300인 이상	10	11	10	3	13	7	8	7	7	8	7	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	1	2	3	3	1	0	30	35	29	36	43
	임시직	389	429	343	331	391	355	353	315	292	301	292	352
	일용직	136	155	94	125	155	166	128	91	73	81	76	78
근속 연수	1년 미만	345	393	294	307	362	363	317	275	241	239	242	300
	1~2년 미만	100	98	75	83	94	75	94	81	67	70	56	59
	2~3년 미만	30	39	27	32	29	31	34	27	29	27	38	40
	3년 이상	52	54	43	37	64	52	37	53	64	76	68	74

<부표 8> 비전형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1,948	1,907	1,933	2,208	2,137	2,283	2,289	2,427	2,286	2,215	2,112	2,206
성	남 성	970	967	918	1,141	1,119	1,156	1,215	1,257	1,202	1,181	1,115	1,137
	여 성	978	941	1,015	1,067	1,018	1,127	1,074	1,170	1,084	1,034	997	1,069
연령	15~29세	337	283	223	267	238	239	217	218	218	181	180	191
	30~39세	494	466	433	454	439	449	396	384	327	326	298	275
	40~49세	516	534	558	633	604	672	625	660	600	560	508	487
	50~59세	331	364	413	499	502	542	631	678	644	657	627	670
	60세 이상	269	262	306	356	354	380	420	487	497	491	499	582
학력	중졸 이하	698	692	724	809	732	789	800	847	796	733	676	722
	고졸 이하	887	877	890	1,041	1,032	1,038	1,035	1,126	1,079	1,044	1,009	1,025
	전문대졸	137	128	133	141	143	182	195	180	168	184	183	183
	대졸 이상	227	211	187	218	231	274	258	274	243	254	244	275
산업	농어업	44	47	42	54	48	70	64	86	64	50	48	61
	광업	0	0	1	1	1	1	1	1	0	0	0	0
	제조업	207	137	136	150	110	116	102	125	99	80	80	79
	전기 등	3	1	0	1	2	0	0	1	1	2	2	1
	하수 등	1	4	1	1	3	2	1	1	1	1	3	2
	건설업	348	389	356	458	465	499	524	508	483	494	456	485
	도소매	236	232	205	231	234	250	240	252	224	194	166	188
	운수	77	53	46	53	38	37	35	43	34	40	47	35
	숙박음식	89	98	84	98	61	92	74	92	78	73	89	103
	출판 등	30	24	17	27	31	31	21	21	29	22	15	20
	금융보험	180	199	224	233	233	227	230	240	231	251	265	223
	부동산임대	33	29	33	31	30	48	55	48	43	29	22	44
	전문과학	28	22	15	20	9	8	12	12	12	9	13	14
	사업서비스	433	458	531	647	670	634	692	746	743	728	690	713

산업	공공행정	21	13	13	14	11	17	10	7	12	14	5	14
	교 육	89	72	91	77	72	87	91	84	77	65	64	79
	보건사회복지	8	9	10	7	7	16	22	29	25	34	26	38
	예술 및 여가	15	19	14	12	20	15	12	23	20	17	11	16
	협회, 개인서비스	62	43	45	44	59	75	61	64	69	67	89	77
	가구내 등	46	55	71	49	33	57	41	43	39	45	23	16
	국 제	1	1	0	0	0	0	1	0	0	0	0	0
직업	관리자	7	6	4	8	3	6	9	6	6	3	2	2
	전문가	152	124	142	148	125	146	142	151	137	111	101	132
	사무직	107	76	52	74	63	74	82	74	76	87	71	78
	서비스	141	137	124	137	128	146	134	150	160	130	143	133
	판 매	358	368	356	406	429	433	419	449	433	412	417	394
	농업숙련	13	16	10	17	7	10	17	16	12	9	7	11
	기능원 등	300	299	297	348	365	403	389	379	349	342	338	360
	기계조작 등	139	112	99	124	118	99	114	137	133	159	128	130
단순노무직	731	770	849	947	899	965	983	1,065	979	962	905	967	
규모	1~4인	549	554	593	678	592	633	690	745	729	724	695	687
	5~9인	382	385	354	442	468	488	489	532	518	475	434	519
	10~29인	480	453	480	571	592	620	573	632	573	532	529	554
	30~99인	366	357	356	387	375	410	416	396	364	383	357	343
	100~299인	116	103	105	89	85	93	84	89	79	74	73	85
	300인 이상	55	55	44	42	25	39	36	32	23	26	23	19
종사상 지위	상용직	373	288	286	390	370	457	530	565	586	580	529	562
	임시직	717	747	789	808	829	842	785	816	766	753	728	721
	일용직	858	872	857	1,010	938	983	974	1,046	935	881	855	923
근속 연수	1년 미만	1,210	1,201	1,242	1,418	1,338	1,453	1,414	1,498	1,361	1,273	1,224	1,321
	1~2년 미만	269	216	242	254	265	280	248	286	280	257	216	236
	2~3년 미만	120	143	108	149	137	144	166	130	146	148	140	124
	3년 이상	349	347	341	388	397	405	461	513	500	537	532	525

<부표 9> 파견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117	118	131	174	139	165	211	197	214	204	194	210
성	남 성	53	43	65	83	64	72	104	92	101	81	80	87
	여 성	64	75	65	92	75	93	107	105	114	123	114	123
연령	15~29세	38	40	34	56	34	53	56	41	43	42	37	34
	30~39세	30	37	30	43	36	42	36	36	44	37	42	36
	40~49세	32	23	30	46	40	39	46	54	48	35	39	44
	50~59세	10	12	24	19	20	18	40	39	42	50	40	47
	60세 이상	7	6	12	11	9	13	33	27	37	40	37	48
학력	중졸 이하	23	19	31	30	22	28	47	39	49	50	40	53
	고졸 이하	57	59	67	92	70	68	99	102	99	93	96	99
	전문대졸	17	18	12	28	21	27	30	17	25	28	29	26
	대졸 이상	19	22	21	23	26	43	34	39	42	33	30	33
산업	농어업	0	0	1	0	0	0	0	0	0	0	0	0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12	13	15	23	15	16	9	11	12	9	13	14
	전기 등	0	0	0	0	0	0	0	0	0	1	1	1
	하수 등	0	0	0	0	1	1	1	0	0	0	0	0
	건설업	10	4	13	16	11	6	8	6	8	9	5	17
	도소매	28	30	24	30	22	20	28	31	30	21	24	28
	운수	2	1	2	2	3	2	3	5	2	3	1	3
	숙박음식	4	7	1	8	5	11	8	8	6	9	11	10
	출판 등	8	12	5	7	14	17	12	16	22	8	4	7
	금융보험	2	1	2	1	2	0	0	1	2	1	0	0
	부동산임대	4	3	1	1	1	2	6	3	4	2	3	4
	전문과학	4	3	4	5	1	3	3	4	2	3	5	6
	사업서비스	31	34	43	64	51	57	102	81	89	103	101	70

산업	공공행정	4	2	8	6	5	13	7	4	10	12	4	13
	교 육	1	2	3	4	3	8	9	4	4	2	2	3
	보건사회복지	1	2	6	4	3	7	9	20	17	18	16	26
	예술 및 여가	1	0	0	0	0	0	1	0	0	0	0	1
	협회, 개인서비스	7	3	1	2	2	3	4	3	7	4	5	5
	가구내 등	0	1	0	0	0	1	0	0	0	0	0	0
	국 제	0	0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1	1	0	2	0	0	1	0	1	0	0	0
	전문가	12	20	15	30	26	39	29	34	41	27	19	29
	사무직	11	14	7	18	13	18	22	20	19	26	19	19
	서비스	10	11	14	17	18	19	24	31	36	20	32	17
	판 매	35	36	31	40	29	26	32	32	37	31	31	34
	농업숙련 기능원 등	0	0	0	0	0	0	0	1	2	1	0	0
	기계조작 등 단순노무직	20	9	17	15	15	18	19	11	13	9	14	21
	7	8	12	14	11	10	19	17	22	24	27	25	
	21	20	33	39	27	36	64	51	45	66	53	65	
규모	1~4인	31	31	29	41	30	37	54	65	55	64	63	62
	5~9인	19	20	17	24	23	17	32	26	49	33	33	39
	10~29인	23	24	29	38	32	43	52	50	52	46	44	40
	30~99인	26	22	29	46	35	38	48	38	35	44	34	39
	100~299인	12	9	20	15	15	18	16	12	12	12	14	25
	300인 이상	6	11	6	10	4	12	9	6	11	5	5	5
종사상 지위	상용직	60	55	61	90	71	98	139	131	131	138	122	120
	임시직	38	48	50	56	52	58	62	59	76	52	60	71
	일용직	18	14	20	29	16	9	9	7	8	14	13	19
근속 연수	1년 미만	56	52	68	82	59	86	102	89	92	89	91	99
	1~2년 미만	23	18	24	33	28	30	29	36	44	36	32	33
	2~3년 미만	11	11	9	16	12	9	20	14	19	23	22	19
	3년 이상	27	36	30	43	40	40	59	58	59	56	49	60

<부표 10> 용역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413	431	498	593	641	622	608	672	682	646	604	656
성	남 성	239	247	269	340	369	343	334	376	371	377	326	349
	여 성	174	183	229	253	272	279	274	297	310	269	278	306
연령	15~29세	57	58	55	69	72	69	67	73	68	49	49	55
	30~39세	53	53	52	68	81	76	63	69	68	61	52	62
	40~49세	66	79	96	106	103	105	102	116	109	113	81	83
	50~59세	117	121	141	169	191	175	183	192	200	197	176	180
	60세 이상	120	119	154	180	195	197	195	223	238	226	246	275
학력	중졸 이하	215	221	258	284	284	276	256	273	281	265	244	262
	고졸 이하	159	168	205	247	282	259	258	302	317	283	256	274
	전문대졸	21	23	21	33	32	43	48	48	39	49	48	49
	대졸 이상	18	18	15	29	43	45	46	50	45	48	56	71
산업	농어업	0	0	1	0	1	0	0	0	0	0	2	0
	광업	0	0	0	0	0	1	0	0	0	0	0	0
	제조업	2	3	3	4	4	6	2	3	6	4	4	5
	전기 등	0	0	0	0	0	0	0	0	0	1	1	0
	하수 등	0	0	0	1	0	0	0	1	1	1	1	0
	건설업	13	8	4	9	14	20	10	7	10	15	11	18
	도소매	0	1	1	2	1	0	6	2	2	2	3	0
	운수	4	0	1	2	3	5	2	2	2	3	4	4
	숙박음식	3	2	5	4	6	10	4	4	4	3	4	7
	출판 등	1	0	0	1	1	0	1	1	0	1	1	4
	금융보험	0	0	0	0	0	0	0	0	0	0	0	1
	부동산임대	7	7	10	7	12	19	19	14	15	10	8	14
	전문과학	3	2	0	0	1	1	1	0	0	0	1	1
	사업서비스	374	403	471	557	592	554	552	631	633	598	555	591

산업	공공행정	1	0	1	0	0	0	0	0	1	0	0	0
	교육	0	0	0	1	2	0	1	1	1	0	1	4
	보건사회복지	0	0	0	1	1	1	4	3	3	4	4	2
	예술 및 여가	0	0	1	0	0	1	0	1	0	1	0	0
	협회, 개인서비스	4	1	2	1	2	4	3	0	2	2	3	4
	가구내 등	0	2	0	1	1	0	0	0	1	0	0	0
	국 제	0	0	0	0	0	0	1	0	0	0	0	0
직업	관리자	1	1	3	5	2	5	5	5	3	2	1	1
	전문가	4	3	5	9	14	6	7	7	10	5	13	10
	사무직	19	13	18	25	32	36	32	35	35	36	31	37
	서비스	26	31	33	41	43	43	43	34	49	39	37	39
	판 매	16	14	12	21	18	26	29	34	29	19	22	20
	농업숙련	2	2	1	1	1	1	3	3	1	3	1	2
	기능원 등	31	34	37	48	53	52	51	53	37	33	35	45
	기계조작 등	41	41	34	43	53	40	51	67	65	82	59	61
단순노무직	273	291	355	400	425	414	387	435	453	427	405	440	
규모	1~4인	58	59	86	104	132	108	129	141	166	152	148	151
	5~9인	90	85	106	121	141	132	139	132	157	132	126	164
	10~29인	115	129	148	195	208	206	178	216	201	188	178	194
	30~99인	97	102	102	123	116	133	122	127	112	130	113	112
	100~299인	36	40	38	38	38	31	27	41	40	35	31	27
	300인 이상	18	15	18	13	6	12	14	15	6	8	8	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3	159	207	270	283	342	377	412	441	431	393	430
	임시직	182	199	207	228	257	215	186	203	185	168	161	154
	일용직	68	72	84	94	101	65	45	58	56	47	50	72
근속 연수	1년 미만	204	220	256	285	314	278	271	290	298	254	252	275
	1~2년 미만	91	67	89	101	123	131	95	138	126	117	100	124
	2~3년 미만	37	51	42	69	57	73	73	50	66	71	60	58
	3년 이상	81	93	111	138	148	140	169	195	192	203	192	199

<부표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711	633	617	635	595	637	590	614	545	545	524	494
성	남 성	308	239	186	214	182	204	193	198	187	185	189	139
	여 성	403	394	431	421	413	433	397	416	358	360	335	355
연령	15~29세	156	99	69	68	79	55	46	56	44	33	36	31
	30~39세	242	232	211	205	189	208	190	162	127	140	125	115
	40~49세	204	199	206	227	218	239	214	223	213	207	202	168
	50~59세	75	72	87	95	76	98	108	132	123	124	130	139
	60세 이상	34	31	43	41	32	38	32	40	38	42	31	42
학력	중졸 이하	105	95	107	92	55	85	71	70	60	53	45	43
	고졸 이하	368	319	303	345	331	315	289	313	284	281	275	246
	전문대졸	73	65	75	59	71	72	76	80	74	68	71	68
	대졸 이상	165	154	132	139	138	165	154	152	127	144	134	137
산업	농어업	3	3	1	1	0	4	0	0	0	0	0	0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46	33	27	24	5	11	6	10	4	2	1	3
	전기 등	1	1	0	1	2	0	0	0	0	0	0	0
	하수 등	1	3	0	0	1	0	0	0	0	0	0	0
	건설업	29	14	14	12	1	4	2	2	2	2	0	2
	도소매	165	152	139	156	169	196	170	177	147	124	104	111
	운수	62	43	35	38	16	12	17	19	16	18	28	11
	숙박음식	27	20	14	9	2	7	3	3	1	3	1	0
	출판 등	17	7	7	8	10	9	3	3	5	9	8	5
	금융보험	177	197	221	231	230	225	228	237	229	250	265	222
	부동산임대	18	17	19	20	14	22	29	29	20	17	10	23
	전문과학	18	15	7	7	3	1	1	2	4	1	1	1
	사업서비스	15	15	10	14	20	11	12	8	7	12	9	10

산업	공공행정	4	5	2	1	2	0	1	0	0	0	0	0
	교 육	78	69	82	71	67	76	80	76	66	62	56	70
	보건사회복지	4	1	2	1	1	1	0	0	0	1	0	0
	예술 및 여가	6	11	8	7	15	10	7	14	8	10	7	13
	협회, 개인서비스	32	24	21	27	37	43	29	33	35	35	34	23
	가구내 등	7	4	9	9	0	3	3	0	0	0	0	0
	국 제	1	1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5	3	1	0	0	0	2	1	1	0	1	0
	전문가	122	98	112	95	79	93	100	98	78	74	66	81
	사무직	59	40	17	22	10	16	21	16	14	16	13	14
	서비스	49	35	23	16	19	22	14	18	11	15	13	15
	판 매	289	296	293	320	367	366	345	367	347	345	350	318
	농업숙련	1	2	0	0	0	1	0	0	0	0	0	0
	기능원 등	33	22	22	13	5	12	9	6	4	6	2	1
	기계조작 등	72	48	29	49	33	32	25	31	32	31	25	19
단순노무직	82	88	119	119	82	95	74	77	58	58	55	47	
규모	1~4인	123	104	136	137	97	104	92	104	95	87	77	86
	5~9인	98	83	58	66	52	66	47	58	43	56	47	33
	10~29인	206	175	185	199	209	215	194	209	190	189	186	186
	30~99인	206	200	185	192	194	204	213	208	189	183	181	164
	100~299인	58	47	36	29	31	34	33	27	22	20	25	23
	300인 이상	20	24	16	13	12	14	12	8	7	10	8	2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1	74	18	26	20	11	10	17	12	5	12	7
	임시직	472	463	478	503	514	548	532	546	490	509	495	470
	일용직	108	96	121	106	61	78	48	51	43	31	17	17
근속 연수	1년 미만	311	253	289	286	233	264	191	206	166	147	122	137
	1~2년 미만	117	109	104	104	99	107	112	95	83	90	71	67
	2~3년 미만	61	69	49	55	62	54	67	63	56	51	52	43
	3년 이상	222	202	174	189	202	211	221	250	240	257	278	247

<부표 12> 가정 내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	전 체	171	141	175	125	65	99	70	75	69	73	58	55
	남 성	23	14	15	24	7	12	5	9	10	6	4	8
	여 성	147	127	160	100	58	86	65	66	59	67	54	47
연령	15~29세	22	12	15	8	9	8	4	5	4	2	5	3
	30~39세	59	42	40	38	21	25	18	30	20	20	13	12
	40~49세	40	37	52	36	18	31	26	17	18	17	17	12
	50~59세	21	28	36	25	9	20	8	12	14	20	18	13
	60세 이상	29	21	32	18	9	16	14	11	13	15	5	15
학력	중졸 이하	68	54	74	47	21	35	21	20	26	23	16	14
	고졸 이하	78	69	78	53	32	51	36	40	30	36	32	27
	전문대졸	14	5	11	8	5	4	5	6	7	4	5	6
	대졸 이상	12	12	13	16	7	8	8	8	5	10	4	8
산업	농어업	1	1	1	1	1	1	0	0	0	0	0	0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0
	제조업	96	67	73	83	47	42	50	56	40	36	39	21
	전기 등	2	0	0	0	0	0	0	0	0	0	0	0
	하수 등	0	0	0	0	0	0	0	0	0	0	0	0
	건설업	1	2	1	4	0	1	1	1	2	1	0	1
	도소매	16	16	18	9	6	10	3	7	5	3	2	5
	운수	1	1	0	0	0	1	0	0	0	1	0	0
	숙박음식	3	1	2	3	1	2	0	0	1	0	1	1
	출판 등	4	2	3	10	5	2	4	0	2	4	3	4
	금융보험	2	3	0	0	0	0	0	0	0	1	0	1
	부동산임대	0	0	1	4	1	1	1	0	0	0	0	1
	전문과학	2	1	0	1	2	2	2	2	2	3	2	4
	사업서비스	2	1	4	1	0	1	5	0	2	3	1	2

산업	공공행정	6	1	0	1	0	2	0	0	0	0	0	1
	교 육	5	8	13	1	0	2	2	4	3	1	2	1
	보건사회복지	2	1	0	0	0	4	1	1	3	6	2	4
	예술 및 여가	0	0	0	0	0	0	0	0	0	0	0	0
	협회, 개인서비스	8	3	8	4	2	7	0	1	1	1	2	2
	가구내 등	20	33	51	2	1	20	1	3	6	13	4	8
	국 제	0	0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0	0	0	0	0	1	0	0	0	0	0	0
	전문가	8	11	16	14	4	6	5	7	7	4	3	9
	사무직	16	3	4	4	5	3	5	2	3	6	2	5
	서비스	3	3	5	1	2	8	2	1	5	6	0	4
	판 매	4	7	5	4	1	2	0	1	1	0	1	2
	농업숙련	0	0	0	0	0	0	0	0	0	0	0	0
	기능원 등	20	9	15	11	3	5	4	3	5	5	3	1
	기계조작 등	7	3	4	4	2	5	3	5	4	7	2	4
단순노무직	112	103	127	86	49	70	50	55	44	46	46	30	
규모	1~4인	120	104	144	95	51	79	53	57	59	59	48	34
	5~9인	9	9	8	13	7	4	6	8	4	6	3	9
	10~29인	21	15	11	13	4	10	7	4	4	3	2	6
	30~99인	9	11	9	2	2	4	3	3	2	5	3	2
	100~299인	4	2	3	1	0	2	1	2	0	0	0	2
	300인 이상	7	1	1	2	2	0	0	2	0	0	1	1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	3	2	4	0	6	3	5	3	6	3	6
	임시직	29	44	70	29	11	26	7	12	19	25	14	25
	일용직	121	93	103	92	54	67	60	58	47	42	41	24
근속 연수	1년 미만	122	102	119	92	48	78	55	58	49	43	35	31
	1~2년 미만	24	20	25	14	7	8	8	10	7	11	8	7
	2~3년 미만	9	7	9	6	4	4	1	1	4	2	5	3
	3년 이상	16	12	22	13	6	9	6	6	9	17	9	15

<부표 13> 일일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666	718	667	845	818	883	870	962	871	821	805	876
성	남 성	395	466	437	554	563	574	606	626	582	574	557	607
	여 성	271	252	230	291	255	308	263	336	289	247	248	269
연령	15~29세	85	90	65	75	55	61	47	53	64	58	57	74
	30~39세	146	144	131	141	136	121	98	110	83	81	77	60
	40~49세	206	234	225	268	260	296	258	274	237	210	191	201
	50~59세	127	157	156	231	241	263	309	326	296	292	290	322
	60세 이상	102	94	90	130	126	141	159	199	191	181	191	220
학력	중졸 이하	338	352	328	427	397	424	430	474	418	368	355	384
	고졸 이하	291	327	303	375	381	397	380	421	397	390	390	420
	전문대졸	18	23	23	24	17	40	38	36	25	37	36	41
	대졸 이상	19	16	13	19	22	22	23	32	31	25	23	31
산업	농어업	40	45	39	53	46	70	64	86	64	50	46	60
	광업	0	0	1	1	1	1	1	0	0	0	0	0
	제조업	87	58	65	69	61	65	47	76	54	42	39	45
	전기 등	0	0	0	0	0	0	0	0	1	0	0	0
	하수 등	0	2	1	0	1	0	0	1	0	1	2	1
	건설업	312	367	335	433	450	484	514	498	474	479	445	471
	도소매	39	44	34	46	44	42	39	43	48	46	36	45
	운수	13	10	14	16	21	17	14	17	16	17	19	18
	숙박음식	57	71	66	76	48	62	58	77	66	57	73	84
	출판 등	1	3	2	3	4	2	1	1	0	1	0	1
	금융보험	1	0	1	1	1	1	2	2	0	1	0	0
	부동산임대	4	1	3	1	1	5	1	3	3	1	1	2
	전문과학	3	5	4	8	2	3	6	5	4	2	5	3
	사업서비스	42	45	48	66	67	41	43	58	48	42	56	78

산업	공공행정	6	5	2	5	4	2	2	2	2	2	1	0
	교육	5	2	2	2	1	3	2	1	4	1	3	0
	보건사회복지	1	5	2	2	2	6	7	5	4	6	4	7
	예술 및 여가	9	11	6	6	7	4	4	10	13	9	5	3
	협회, 개인서비스	19	18	17	17	26	31	27	36	36	31	51	48
	가구내 등	28	25	24	41	31	44	39	41	35	35	19	9
	국 제	0	0	0	0	0	0	0	0	0	0	0	0
직업	관리자	0	0	0	0	0	0	0	0	0	0	0	0
	전문가	7	2	2	10	7	4	4	5	3	3	1	3
	사무직	4	7	5	7	4	1	3	3	6	3	7	3
	서비스	67	72	58	69	54	65	54	70	67	54	66	64
	판매	24	23	18	24	16	17	15	17	22	18	18	23
	농업숙련	10	12	8	16	6	9	14	12	10	5	5	9
	기능원 등	217	237	227	282	310	331	317	323	300	303	291	321
	기계조작 등	16	20	26	28	29	20	19	30	26	25	22	31
단순노무직	320	345	322	411	391	436	443	502	437	411	394	421	
규모	1~4인	286	318	288	389	338	380	398	435	414	408	403	394
	5~9인	189	214	188	245	272	287	275	323	279	258	239	291
	10~29인	140	134	133	161	166	164	152	166	143	119	128	150
	30~99인	36	39	47	38	39	42	35	26	30	22	31	30
	100~299인	10	10	8	8	2	10	9	10	5	9	3	8
	300인 이상	5	3	3	4	1	0	1	3	0	4	1	3
종사상 지위	상용직	0	0	0	0	0	0	0	0	0	0	0	0
	임시직	1	4	0	3	0	0	0	0	0	0	0	0
	일용직	665	713	667	843	818	883	870	962	871	821	805	876
근속 연수	1년 미만	637	689	648	822	793	866	852	945	837	810	795	863
	1~2년 미만	21	14	7	7	13	7	5	10	29	3	5	6
	2~3년 미만	2	7	2	4	4	3	6	3	3	2	0	1
	3년 이상	6	8	10	11	9	6	7	4	2	6	5	6

<부표 14> 시간제 근로자 추이(8월 기준)

(단위: 천 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1,072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1,826	1,883	2,032	2,236
성	남 성	278	309	345	359	372	369	427	470	506	526	587	688
	여 성	794	736	790	843	857	1,058	1,194	1,232	1,320	1,357	1,445	1,548
연 령	15~29세	300	320	307	347	329	369	418	439	489	495	569	606
	30~39세	266	238	267	236	237	243	264	256	233	244	245	241
	40~49세	243	222	245	249	265	338	336	336	337	334	335	343
	50~59세	133	132	140	172	178	197	241	282	307	311	305	381
	60세 이상	130	133	176	198	220	279	361	389	461	499	578	665
학 령	중졸 이하	331	325	355	378	389	442	512	538	579	565	595	683
	고졸 이하	514	504	523	571	596	683	734	782	838	868	928	1,020
	전문대졸	57	59	76	77	56	81	104	113	128	142	144	160
	대졸 이상	169	157	180	176	188	220	270	269	282	308	364	373
산 업	농어업	24	32	25	26	28	21	29	24	22	19	20	32
	광 업	0	0	0	1	0	0	1	0	0	0	0	0
	제조업	108	93	93	85	85	99	94	77	74	83	88	115
	전기 등	2	1	0	1	1	0	0	2	2	3	2	3
	하수 등	1	1	1	1	0	0	3	0	2	5	1	3
	건설업	95	80	93	82	72	82	85	84	80	78	75	107
	도소매	178	162	178	194	200	237	261	274	320	285	289	302
	운 수	16	18	21	22	20	20	22	17	20	27	24	32
	숙박음식	177	195	183	209	195	226	254	258	284	332	377	403
	출판 등	16	13	12	16	13	12	12	13	20	29	22	27
	금융보험	18	14	23	14	12	11	12	21	19	23	20	23
	부동산임대	20	20	20	22	21	18	23	30	26	33	31	34
	전문과학	13	12	13	12	13	10	11	21	14	21	19	28
	사업서비스	34	40	36	42	58	56	67	84	101	82	92	124

산업	공공행정	63	56	86	94	93	131	152	141	166	173	171	171
	교 육	172	170	194	179	195	233	251	251	253	259	299	282
	보건사회복지	18	22	31	49	51	106	177	201	209	234	299	327
	예술 및 여가	20	34	32	37	47	42	42	58	59	55	54	79
	협회, 개인서비스	50	37	54	53	72	64	63	87	89	81	122	120
	가구내 등	45	46	38	63	52	59	62	60	65	62	28	23
	국 제	1	0	0	0	0	2	0	1	0	0	0	0
직업	관리자	1	1	1	2	2	2	3	3	2	5	2	5
	전문가	188	182	207	203	233	247	296	328	309	333	364	380
	사무직	88	81	99	100	93	94	120	124	149	161	169	167
	서비스	184	187	183	212	216	269	289	322	365	369	397	453
	판 매	130	110	130	140	132	179	202	207	258	237	242	258
	농업숙련	5	11	8	8	2	3	5	2	5	1	3	5
	기능원 등	76	61	76	58	59	64	61	52	46	53	50	79
	기계조작 등	27	29	36	30	35	31	27	26	20	33	37	48
단순노무직	375	382	395	449	456	537	618	639	672	692	767	841	
규모	1~4인	493	496	526	574	546	614	687	739	795	819	845	917
	5~9인	220	210	225	244	263	291	335	337	395	420	466	504
	10~29인	190	183	207	201	234	284	322	349	354	349	392	426
	30~99인	100	95	107	115	115	149	180	175	181	195	200	227
	100~299인	34	28	36	38	35	49	42	46	54	47	49	68
	300인 이상	36	34	33	30	35	39	54	56	48	52	80	9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	16	17	18	22	51	82	134	141	174	194	228
	임시직	453	432	533	582	578	750	943	986	1,094	1,163	1,300	1,418
	일용직	599	596	586	602	629	625	595	582	591	547	538	590
근속 연수	1년 미만	801	811	843	912	925	1,087	1,194	1,202	1,260	1,288	1,386	1,545
	1~2년 미만	137	107	134	138	148	156	193	211	215	224	246	260
	2~3년 미만	51	47	55	61	53	60	82	86	114	102	119	124
	3년 이상	83	78	103	92	104	123	151	203	237	270	282	307

<부표 15>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8월 기준)

(단위: 천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임금근로자	1,542.3	1,593.3	1,655.8	1,745.5	1,846.2	1,852.0	1,948.9	2,032.2	2,104.1	2,181.4	2,231.2	2,297.0
정규직	1,771.4	1,845.7	1,908.2	2,008.5	2,127.3	2,200.9	2,294.4	2,388.3	2,459.6	2,545.5	2,603.6	2,696.1
비정규직	1,151.8	1,156.4	1,198.2	1,276.0	1,295.9	1,201.8	1,258.3	1,348.1	1,393.1	1,428.3	1,452.9	1,467.1
한시적 근로	1,231.7	1,240.3	1,313.0	1,440.3	1,457.8	1,301.0	1,400.1	1,502.0	1,567.2	1,601.8	1,614.1	1,628.9
기간제	1,187.4	1,258.2	1,292.6	1,418.8	1,489.4	1,311.4	1,360.0	1,463.1	1,545.2	1,580.6	1,583.4	1,626.2
반복갱신	1,704.3	1,692.3	1,774.1	1,949.0	1,853.6	1,930.7	2,263.3	2,201.7	2,146.8	2,413.6	2,227.7	2,106.6
기대불가	920.0	924.0	951.0	944.7	1,052.0	1,039.4	1,060.5	1,195.6	1,296.9	1,233.6	1,287.0	1,336.7
비전형 근로	1,067.5	1,080.6	1,045.8	1,111.9	1,197.0	1,190.9	1,249.0	1,321.1	1,382.3	1,411.8	1,514.8	1,505.6
파견	1,271.5	1,316.0	1,260.8	1,341.3	1,473.2	1,414.4	1,410.2	1,523.5	1,619.6	1,498.7	1,527.0	1,590.8
용역	922.4	948.1	932.9	1,023.5	1,083.3	1,110.9	1,174.9	1,224.4	1,263.7	1,353.7	1,382.8	1,453.1
특수형태	1,390.5	1,422.4	1,321.9	1,421.8	1,553.4	1,529.1	1,629.5	1,791.5	1,813.0	1,800.9	2,071.8	1,972.3
가정 내	563.7	566.8	596.4	568.4	486.5	600.4	435.3	519.9	663.2	607.3	603.4	829.4
일일근로	836.6	859.5	872.9	891.8	983.4	953.0	1,040.2	1,054.8	1,151.5	1,211.0	1,274.1	1,291.7
시간제	539.0	522.3	550.6	560.9	573.8	535.2	564.6	604.2	607.5	654.0	661.7	705.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15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 발행연월일 | 2015년 12월 26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 방 하 남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5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018-0